

해외무역관에서 바라본 2008년도 수출전망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 2008년도 수출전망 개요 / 3

3	1. 종합전망 및 수출여건
6	2. 지역별 수출전망
9	3. 품목별 수출전망
11	4. 수출유망품목

II . 해외 지역별 수출전망 / 13

13	1. 북미지역
27	2. 중국지역
38	3. 아시아대양주 지역
47	4. 유럽지역
58	5. 일본지역
68	6. CIS지역
85	7. 중동아프리카 지역
98	8. 중남미지역

요 약

2008년도 우리 수출은 2007년 13.9%보다 다소 둔화된 12.5% 증가하여, 2007년 3천5백억불 수출에 이어 사상 최초로 수출 4천억불을 달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유가와 원화강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수출은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동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우리 수출은 북미,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시장에 대해서는 소폭상승하거나, 현상유지에 그치는 반면, 아시아 및 중동아프리카, CIS 지역 등 신흥성장 시장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신흥시장은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을 만큼 고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설비투자 수요와 소비수요가 크게 성장하면서 기계류 및 플랜트 기자재, 철강 등 산업설비에 필요한 품목은 물론, 소비재 시장의 확대와 고급화의 영향으로 고급 디지털가전, 최신 휴대폰, 노트북 등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섬유 및 일반 범용가전은 경쟁력 열위와 현지 생산확대에 따라 수출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對선진국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 현지 생산공장 가동으로 자동차의 대미수출은 지속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섬유 및 일반 컴퓨터 제품은 중국 등과의 가격경쟁에서 고전하여 수출증가는 어려울 전망이다.

對중국수출은 기존 원부자재 위주의 수출에서 내수 소비재 수출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가전, 고급형 디스플레이, 최신 휴대폰의 수출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중국 내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철강 등은 수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2008년도에도 우리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여건별 진출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중국 등 주력시장에서의 입지 강화와 신흥시장 선점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수출 주력품목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전략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하이테크 제품 위주의 수출과 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된 부품소재 산업 육성으로 미래의 수출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I. 2008년도 수출전망 개요

1. 종합전망 및 수출여건

가. 2008년도 수출전망

□ 내년도 우리 수출은 올해보다 12.5% 늘어난 4,173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

(단위 : 억불, %)

년 도	2007	2008
금액 (증감률)	3,708 (13.9)	4,173 (12.5)

자료원 : KOTRA 해외무역관 종합

(바이어 912개사, 주재상사 374개사, 조사기관 152개사 등 총 1,438개사)

※ 국내 주요 기관의 수출증가율 전망

기관명	2007년	2008년
KDI	13.5%	10.9%
삼성경제연구소	13.9%	11.9%
LG경제연구원	13.8%	11.6%
국회예산정책처	13.1%	12.0%

- 고유가 및 원화강세 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여 사상 최초 4천억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

□ 품목별/지역별 주요 내용

- 기계, 철강,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예상
 - 신흥시장의 설비수요 증가 및 소득증대에 따른 구매력 신장
 -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
- 무선통신기기 및 가전은 현상유지, 섬유 및 컴퓨터 등은 수출감소
- 북미, EU, 일본 등 對선진국 수출은 현상유지, 對중국수출은 소폭증가, 중동아프리카 및 CIS지역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은 대폭증가 예상

나. 수출여건

- 2008년 세계경제의 성장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신흥시장은 세계경제 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지속 강화
 - 국제통화기금(IMF)은 2008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2007년의 5.2%보다 낮은 4.8%로 전망
 - 선진국의 성장동력 약세
 - 미국 : 개인소비 부진, 부동산 경기위축, 금융시장 불안 등
 - EU : 달러약세에 따른 수출위축, 개인소비 부진
 - 일본 : 장기불황 후유증 당분간 지속
 -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가가 세계경제 성장 주도
 - 연평균 8~11%의 고성장 구가
 - 세계경제 성장에의 기여도가 전체의 절반 차지

〈세계 및 주요국 경제성장 전망〉

(단위 :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세계	4.8	5.4	5.2	4.8
미 국	3.1	2.9	1.9	1.9
유로존	1.5	2.8	2.5	2.1
일 본	1.9	2.2	2.0	1.7
아프리카	5.6	5.6	5.7	6.5
중 국	10.4	11.1	11.5	10.0
인 도	9.0	9.7	8.9	8.4
러시아	6.4	6.7	7.0	6.5
한 국	4.2	5.0	4.8	4.6

주 : 2007년은 예상치, 2008년은 전망치

자료원 : IMF

- 2008년 세계경제는 성장률이 둔화되기는 하나, 꾸준한 성장을 지속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확산은 꾸준한 성장을 유도
 - 전 세계 FDI 증가 → 설비투자 및 생산확대
 - 기술개발 및 확산 → 경제발전의 지역불균형 해소

○ FTA를 통한 교역확대 역시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

- FTA를 통한 무역창출효과 확대

□ 2008년 세계경제의 최대 관건은 미 달러화 약세와 유가상승

○ 미 달러화는 엔화를 제외한 세계 거의 모든 통화 대비 약세 행진 지속

- '05.1월~'07.11월 중 미 달러화 대비 원화환율 12.7% 하락

- 전 세계적 달러화 약세로 주요국 통화도 환율하락

· 유로화(10.5% 하락), 위안화(10.4% 하락)

- 반면, 엔화 환율은 9.5% 상승

○ 지난 해 대비 세계 원유가 최고 40% 이상 상승

〈국제 원유가격 변동 추이〉

(단위 : US\$/bbl)

구분	'05년 평균	'06년 평균	'07년 평균*	'07.9월	'07.10월	'07.11.1~11.26
Dubai	49.37	61.55	66.49	73.32	77.23	86.93
Brent	54.30	65.06	70.71	77.51	82.80	93.07
WTI	56.46	66.04	70.15	79.95	85.91	95.57

주 : '07년 평균은 1.1월~11.26일까지 평균임.

자료원 : 한국석유공사

- 유가상승은 물가상승을 야기하고, 이는 곧 주요 시장에서의 소비위축을 의미함.

· 선진국 시장의 소비위축은 개도국의 수출감소 야기

- 한편, 산유국에는 원유수출 증가에 따른 막대한 오일달러 유입

□ 2008년에도 우리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하이테크 제품을 통한 고급 소비재 시장에서의 인지도 확대

○ 중동아프리카, CIS 지역 등에서 대형 프로젝트 수주 증가

○ 관세인하, 통관절차 개선 등 FTA를 통한 교역확대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는 지속 증가하는 바, 이를 수출로 연계하기 위한 전략적 해외마케팅이 요구됨.

□ 시장별로는 미국, 중국 등 주력시장에서의 입지 강화와 신흥시장 선점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 필요

- 미국, 중국 등 주력시장은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각축장
 - ‘가격과 품질’ 위주의 단순한 마케팅에서 탈피하여, ‘서비스와 브랜드 파워’를 결합한 프리미엄 마케팅 전개
- 신흥시장에서는 경쟁국 및 로컬 기업과의 차별화를 통한 선점효과가 무엇보다 중요
 -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한 산업설비, 도시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개도국형 시장 진출을 모색함과 동시에,
 - 빠르게 성장하는 고소득 소비계층, 명품 브랜드 시장 등에 대한 분석과 대처방안도 필요

□ 수출 주력품목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전략 필요

- 일부 가격경쟁력 기반제품(섬유, 컴퓨터, 소형가전 등)은 해외시장에서 중국 등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
 - 하이테크 제품 위주로 수출품목을 재편성하는 한편,
 - 해외투자진출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 필요
- 중국, 아시아 등 현지 생산기지로의 부품소재 수출구조 재편
 - 가격위주 및 저부가가치 부품소재는 현지생산 혹은 현지조달
 - 하이테크 제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은 국내산업 육성을 통한 동반성장효과 거양

2. 지역별 수출전망

□ 2008년 우리나라 수출은 중국 및 미국 등 주력 시장과 중동, 아시아, CIS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이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증가 전망

- 미국과 일본시장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 간 수출감소 혹은 수출증가 미미 등에 대한 기술적 반등요인이 큼.
- 유럽시장은 유로화 강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출 증가

〈2008년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전망〉

지 역	2007년 (예상)		2008년 (전망)	
	금액(억불)	증감률(%)	금액(억불)	증감률(%)
북 미	501	7.0	548	9.4
유 럽	603	10.1	643	6.7
일 본	256	-3.5	275	7.4
중화권	1,167	15.1	1,304	11.7(對중국 15%)
아시아대양주	534	16.3	614	15.0
중동아프리카	294	32.6	363	23.4
CIS	101	40.0	132	30.0
중남미	251	22.0	294	17.0
총 계	3,707	13.9	4,173	12.5

자료원 : KOTRA 해외무역관 종합

(바이어 912개사, 주재상사 374개사, 조사기관 152개사 등 총 1,438개사)

□ 북미, EU, 일본 등 對선진국 수출은 현상유지 및 소폭상승에 그칠 전망

- 미국시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 금융경색으로 2% 내외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으로 수입수요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미 달러에 대한 유로화 강세로 EU지역 경제 부담 가중
 - 수출 및 소비위축 → 수입수요 감소
- 일본은 올해 엔화약세로 수출여건이 유리했으나, 내년도에는 엔화강세가 전망됨에 따라 부담요인 증가

□ 선진국 시장에서의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신규수요에 주목

- FTA 발효 이후, 관세인하 및 국가 신인도 제고에 힘입은 미국, 캐나다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 특히, 자동차 시장 개방에 따른 자동차 및 부품 수출 확대 기대
- EU 신규 가입국 중동구 시장의 수입수요 확대
 - EU 전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높은 경제성장 지속
 - 현지 진출 우리기업 증가에 따른 관련 부품소재 수출 확대
 - 급팽창하는 내수시장을 위한 고급 소비재 수출 증가
-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참여
 - 미국, EU, 일본 등의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 생산체제를 더욱 심화

- 기존 부품공급 수준에서 벗어나 R&D, 디자인 영역 등으로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중
- 對중화권 수출은 對중국수출이 예년의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홍콩 우회수출 및 재수출이 감소하여 전체적 증가세는 둔화
 - 중국 정부의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입확대 정책이 해외로부터의 수입증가를 야기할 전망
 - 아울러 소득증가에 따라 최근 급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 확대로 소비재 수입 증가 예상
 - 그러나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은 몇가지 점에서 불안요소 존재
 - 중국 수출증가와 동반현상을 보이던 우리 수출이 중국의 수출증가세 둔화에 따라 감소 위험
 - 최근 중국 내 다국적기업과 중국기업의 생산량 증가 추세는 일부품목에 국한된 對중국 수출구조를 위협
- 중국시장의 재편에 따른 우리 대중수출 구조 개선 필요
 - 내수관련 품목 수출확대 전략
 - 기존 원부자재 위주의 수출구조는 중국 산업의 성장에 따라 급격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
 - 중국기업 뿐 아니라, 중국 내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을 감안한 수준 높은 수출구조로 전환
- 아시아대양주, 중동아프리카, CIS,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대한 우리 수출은 두 자리 수 증가율을 이어가며, 전체 수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 고도성장에 따른 산업설비 수요,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재 수요, 오일머니 유입 등에 따른 대형 건설 프로젝트 발주 등 우리기업의 시장진출 기회 다대
 - 특히 산업설비 수출 및 대형 프로젝트 참여는 여타 관련 품목의 연계수출 효과
 - 한류 등 영향으로 우리 기업 마케팅 여건 개선
 -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로 고급가전, 고급 휴대폰, 자동차 등 수출 호조
 - 시장쟁탈전 심화, 현지 정치적 여건 불안 등 위험요소도 상존
 - 가격위주의 저가품 시장이 비교적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적 특징으로 인해 중국산 제품의 시장잠식 가속화
 - 일부 중동지역(이라크, 이란 등) 및 아시아지역(미얀마, 파키스탄 등)의 정치적 불안으로 경제 안정성 저해 우려

3. 품목별 수출전망

- 기계류 및 석유화학제품,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이 대폭 증가할 것이며, 자동차, 철강,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도 호조를 이어갈 전망

〈2008년 우리나라의 품목별 수출전망〉

품목명 (MTI코드)	'08 전망 (07년 대비)	전망근거 요약
일반기계 (71,72,73,79)	대폭증가	- 산업설비 수요가 많은 아시아, 중동지역 중심으로 수출대폭 증가 예상 - 엔저 영향으로 북미 지역에서는 경쟁 격화
자동차 (741)	소폭증가	- 북미지역 생산공장 가동으로 직접수출 제약 - CIS, 중동 지역에서의 인지도 상승으로 증가 예상
철강제품 (61)	소폭증가	- 건설수요가 많은 아시아, 중동지역으로 수출증가 - 일본, 중국 등과 경쟁하지 않는 틈새품목을 중심으로 선진국시장으로의 수출 소폭 증가 예상
석유화학제품 (21)	대폭증가	- 유가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영향
섬유류 (4)	소폭감소	- 미국 등 주력시장에서 중국과의 가격경쟁력 열위 - 중국, 아시아 등 현지 생산기지로의 원부자재 수출은 현상유지
평판디스플레이 (8361)	대폭증가	- 디지털카메라, LCD TV 등 고급가전 수요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
무선통신기기 (812)	소폭증가	- 전 세계적으로 IT 재고조정 완료 시기 - 경쟁격화에 따라 시장확대에 한계 - 고급 신규모델 제품 수출 확대 예상
반도체 (831)	소폭증가	- 전 세계적으로 PC 수요 증가 전망 - 디지털카메라 등 고급전자 제품용 플래시메모리 위주로 수요 확대 예상
가전 (82)	현상유지	- 디지털TV, 양문형 냉장고 등 고급가전 수출확대 - 일본 내 삼성의 가전시장 포기 등 범용제품 시장확대에 한계점 노출
자동차부품 (742)	대폭증가	- 북미, 유럽 등 한국 자동차 판매신장에 따른 부품 수요 증가 - 글로벌 아웃소싱 참여 등을 통한 한국산 제품 인지도 및 선호도 상승
컴퓨터 (813)	소폭감소	- 단순 조립제품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고전 - 노트북 등 고급형 제품 시장 위주로 수출전환
석유제품 (133)	소폭증가	- 고유가 현상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 신흥시장의 산업생산 증가에 따른 수요증가
선박류 (7461)	현상유지	- 해운 물동량 증가로 일부 수요의 확대는 있으나, 기 수주물량은 대부분 인도 완료

자료원 : KOTRA 해외무역관 종합

(바이어 912개사, 주재상사 374개사, 조사기관 152개사 등 총 1,438개사)

- 일반기계, 석유화학제품은 신흥시장의 경기활황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설비투자 증가에 힘입어 수출 증가 예상
 - 일반기계는 아시아, CIS, 중동지역에서 신규 수요 뿐 아니라 교체수요도 발생하여 현재 수주물량이 풍부한 상태
 - 단, 원화강세 및 엔화약세로 미국시장에서 일본제품이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어 우리 주력품목의 수출증가에 타격
 - CIS 및 중동 지역에서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관련 설비 수출 지속 증가 전망
 - 석유화학제품은 유가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분 반영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은 인지도 확대에 따른 수출증가 예상

- 자동차는 미국 및 유럽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CIS 및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 예상
 - 단, 미국시장은 현지 생산 확대로 직접수출은 제약
 -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시아 시장으로의 자동차 수출이 시작단계에 이를 전망이나, 현지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산과의 경쟁이 관건
- 자동차 수출 호조에 따라 자동차부품 수출도 증가 예상
 - 미국, 유럽 등 현지 생산공장으로의 부품공급 증가
 - 주요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 시장점유율 증가에 따라 A/S용 부품수요 증가

□ 평판디스플레이, 가전, 컴퓨터 등은 고급제품 위주로 수출 집중

- 디지털카메라, 고급 휴대폰 등에 사용되는 평판디스플레이 수요 증가
- 가전과 컴퓨터는 단순 조립제품의 경우, 중국산 등 저가제품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LCD TV, 노트북 등 고급형 제품 위주로 품목구조 재편 중
 - 가전의 경우, 일본시장에서 국내 한 기업의 판매중단이 결정된 바, 범용제품의 수출확대에 한계 노정

□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우리 수출 효자품목으로 자리잡았던 무선통신기기는 시장포화 및 경쟁격화로 수출증가세 둔화

- 전 세계적으로 시장포화 상태에 접어들어 신규수요 발생 미약
- 최신 고급제품을 중심으로 교체수요 시장확대 전망

- 국내 기업의 최신 기종이 해외시장에서 소비자 인기 상승

□ 반도체는 2008년 해외시장이 전반적으로 수요확대 예상

- 전 세계적으로 IT 재고조정 완료 → 신규 수요 발생
- PC 및 디지털카메라용 플래시메모리 수요 지속 확대 중

□ 선박은 해운 물동량 증가로 일부 수요의 확대는 있으나, 기 수주물량은 대부분 인도 완료

- 중국의 생산력 확대, 엔저현상에 따른 일본의 가격경쟁력 등으로 경쟁여건 악화 가능성

□ 섬유는 편직물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수출감소 추세

- 중국산 저가제품의 대량유입에 따른 경쟁력 약화
- 중국 및 아시아 생산기지로의 원부자재 수출은 현상유지

4. 수출유망품목

□ 2008년도 수출유망품목은 기계류, IT제품, 자동차부품, 철강, 디지털전자 등임.

- 신흥시장 경기활황에 따른 산업설비와 소비재 시장 확대에 따른 디지털전자 수요 확대
- 자동차 수출증가에 따른 부품수요 확대

□ 기계류는 아시아, 중동아프리카, CIS 등 신규 수요 확대지역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기존 주력시장으로의 수출도 유망

- 공작기계, 반도체 제조장비, 원동기 및 펌프 등은 미국 등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 유망
- 기초 산업기계, 섬유 및 화학기계, 건설중장비 등은 아시아, 중동아프리카 시장에서 수요 증가 예상
- 원화강세로 미국 등 일부 시장에서 경쟁여건이 나빠졌으나, 중국 저가제품과 일본 고급 제품의 틈새시장에서 선전 예상

□ IT제품 중에서는 평판디스플레이가 전 지역에서 고르게 수요가 확대될 예정이며, 시장 개선이 예상되는 반도체 수출도 증가 전망

- 시장포화 상태에 접어든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고급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플래시메모리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 수출 유망
- 컴퓨터는 고기능 노트북 위주로 시장점유율 확대 예상
- 자동차부품은 미국 시장에서의 자동차 판매 증가에 따라 A/S부품 및 주문형 장착품 시장 확대 전망
 -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및 신뢰도 상승
 - 세계 주요 완성차 제조사의 글로벌 아웃소싱 참여
- 아시아 및 중동 지역의 건설붐에 따라 철강제품 수요 확대
 - 특히, 대형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연계수출 증가
 -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시장에서도 제3국 저가품 대비 높은 품질로 틈새시장 확대 중
- 디지털TV 등 고급가전, 방송 통신기기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확대 전망
 - 베이징 올림픽, 유로 2008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 개최로 고급 영상기기 교체수요 발생
 - 국내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마케팅으로 고급 브랜드 시장 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
 - 범용가전은 현지생산-현지판매 체제 구축으로 직접수출 물량 감소
- 이 밖에 아시아, 중남미, CIS지역 시장에서는 건축용 자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분야 수출 호재로 작용

II. 해외 지역별 수출전망

북미지역

1. 2008년 북미지역 경제 및 시장여건

가. 낙관적 요인

- ☐ 노동시장의 안정세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일부 상쇄
 - 신규 고용의 증가로 실업률 4.7%의 안정세
 - 고용증가 : 93,000(7월), 89,000(8월), 110,000(9월)
- ☐ 북미 제조업체의 설비투자 확대
 - 항공우주 등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 및 캐나다 제조업체들의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기계류 수출에 호재로 작용
- ☐ 아웃소싱의 증가
 -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등 제조업체의 아웃소싱 증가로 부품의 수입 수요 증가
- ☐ 캐나다화 평가절상에 의한 캐나다 수입수요 증대
 - '07.10월 부터 C\$ 1 = U\$ 1.05~1.10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도소매부문 무역확대와 개인 소득, 소비 증대에 힘입어 수입수요 증가 일로
 - '07.8월 기준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5.7% 증가한 U\$ 2,453억을 기록 중이며, '08년 수입은 금년 대비 두 자리 수 이상 증가 전망

나. 비관적 요인

- ☐ 미국 경기 하강 추세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신용경색에 따른 금융권 동요 및 주택시장 침체, 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2008년 중 미국 경제성장률이 하락국면에 접어들어 전반적인 수입수요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IMF 2008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2006년	2007년	2008년
2.9%	1.9%	1.9%

- 미국 경기침체와 맞물려 캐나다 경기도 동반하락 우려
 - 캐나다 건설경기과 오일 프로젝트 활황세가 다소 누그러질 전망
 - 미국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2.2%~1.3%로 하향조정 불가피

□ 미 주택경기 하락에 따른 건자재 수요 감소

- 자동차 및 주택경기 하락에 따라 강판, 건축자재 등의 수요가 위축

□ 미국의 개인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인한 소비지출 둔화

- 유류가격의 기록적인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개인 가처분 소득 감소 불가피

□ 중국의 미국시장 점유 가속, 2007년 최대 수입대상국 전망

- 수입대상국 순위 : 10위('90) → 5위(2000) → 2위(2006) → 1위(2007)
- 시장점유율 : 3.1%('90) → 9.0%(2000) → 15.5%(2006)

2. 2008년 對북미지역 우리나라 수출전망

가. 총괄표

구 분	단 위	2007년	2008년
금 액	백만불	50,078	54,790
증감률	%	7.0	9.4

나. 전망근거

1) 밝은 면

□ 한-미 FTA 발효

- 현재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통관 기준 완화문제로 미 행정부의 한미 FTA 협상안 의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으나, '08년내 한미 FTA가 발효될 전망

- 한미 FTA의 미의회 심의 및 발효 과정을 통해 미국내 (잠재) 바이어의 한미 FTA에 대한 인지도가 확산되고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어 대미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 이후 수출 확대 가능성 고조

- '05.7월부터 시작한 한-캐 FTA협상은 자동차 및 농산물 등 핵심 쟁점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
- 특히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3천CC 이하 자동차 관세 철폐 시 대캐나다 수출확대가 기대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 가전, 타이어, 휴대폰, 철강 등도 캐나다 시장진출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원화가치 안정화 및 경쟁국 통화 평가절상 전망

- 현재 8천억불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인한 미국 달러화의 평가절하 추세에 대응, 미국은 중국 및 일본 등에 대해 위안화 및 원화 평가절상 압력을 강화하고 있음.
- 메릴린치 등에 따르면 미 달러화는 2008년 중반부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한국 원화도 2006~2007년 간 가파른 절상추세에서 벗어나 2008년 중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됨.

〈미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 환율전망〉

통화	'07년 12월	'08년 3월	'08년 6월	'08년 9월	'08년 12월
유로화	1.44	1.36	1.33	1.30	1.29
엔화	111	109	108	107	107
파운드화	2.03	1.97	1.93	1.88	1.84
원화	890	910	908	905	908

자료원 : Merryl Linch

□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증가

- 자동차, 냉장고, 휴대폰 등의 마케팅 성과에 힘입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증가세
- 치열한 가격경쟁 및 일부 제품의 수요감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출 증가의 호재로 작용

2) 어두운 면

□ 우리기업의 해외 생산공장에서부터의 공급비중 확대

- 자동차의 경우, 현대자동차의 알라바마 현지 생산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자동차의 대미 수출 감소
 - 현대차 미국 판매 물량의 약 50%, 그리고 캐나다 판매물량의 약15%정도를 알라바마 현지에서 공급 중
 - 유가상승으로 인한 물류비 부담으로 현지 생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
- 타이어 및 가전의 경우에도 해외생산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
 - 타이어 : 중국
 - 가전, 휴대폰, IT : 중국, 멕시코, 동남아

□ 캐나다 제조업 경쟁력 하락에 따른 설비투자 저조, 해외이전 가속화

- 캐나다화 강세 지속에 따라 제조업 기반의 동부 온타리오주, 퀘벡주의 경기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 및 멕시코 등으로 제조업체들의 해외이전 가속화
- 또한 금년도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해 내년에는 주요 기업들의 대대적인 감원 및 생산 규모 축소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설비투자 감소 및 제조업 전반의 침체 우려

다. 종합 의견

- 2008년 북미지역 경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경색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2% 내외의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한미 FTA의 발효, 한-캐나다 FTA 추진 등으로 국내기업의 수출여건 개선되는데다 환율이 금년말을 기점으로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놓일 것으로 전망됨.
- 현지생산 증가 및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자동차와 섬유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나 가전,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등의 호조에 힘입어 9.4%의 수출성장률 실현 전망

3. 품목별 수출전망

가. 주요 품목 수출전망

품목명 (MTI코드)	'08 연간전망 ('07년 대비)	전망근거 요약
일반기계 (71,72,73,79)	소폭증가	- 원화절상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 - 주력 수출 제품인 건설 중장비 및 원동기 펌프 등의 수출 부진 - 신규 수출 증가 품목인 반도체 기계 및 섬유 및 화학 기계의 수출 증가가 수출 부진을 어느 정도 보전
자동차 (741)	소폭감소	- 현대자동차의 알라바마 현지 생산으로 국내로부터의 수출물량은 줄어들 전망 - 현지의 한국 브랜드 자동차 판매 실적은 신차출시와 소형차 집중공략 등으로 소폭 상승전망
철강제품 (61)	소폭감소	- 주택경기 하강에 따른 건축자재 수요 위축으로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 신규 유전개발로 라이파이프 및 기름수송용 파이프의 수요 증가로 전반적인 감소세 일부 보전
석유화학제품 (21)	소폭증가	- FTA 체결 이후 관세절감 효과로 수출물량 소폭증가 - 기초유분 및 석유화학 중간원료 등의 대미 수출 호조가 지속될 전망
섬유류 (4)	소폭감소	- 한미 FTA 효과에도 불구하고 섬유제품(의류)의 국내 생산기반 취약과 경쟁력 약화로 수출 감소세 지속전망 - 섬유사 및 원료는 한국제품의 경쟁력 및 한미 FTA 소폭 관세인하 효과로 5% 내외 증가 전망
평판디스플레이 (8361)	대폭 증가	- 디지털방송 시대, 美 대선, 베이징올림픽 영향으로 TV교체 수요 확대 - 가격인하 완료, 판매량 확대로 수출금액 대폭 상승
무선통신기기 (821)	소폭증가	- 미국 시장내 3G 폰, 뮤직폰, 스마트폰 보급 확대 및 기존 계약 만기 휴대폰 교체 수요 증가 - 업체간 '전략 동조화'로 출혈 경쟁 양상 보여 대미 수출에 있어서 소폭 증가 예상
반도체 (831)	소폭증가	- 수요가 PC에서 휴대폰, MP3, 게임기,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이전하여 Flash메모리 수요확대 지속 - DRAM은 과잉공급 상태 해소 관건
가전 (82)	대폭 증가	- 주력수출품목인 컬러 TV 수출회복 및 한미 FTA 발효시 현행 5% 관세인하 - 세탁기 수출 급증세 지속 및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기타 가전제품의 수출증가세 지속

자동차부품 (742)	소폭 증가	- 아웃소싱 확대 정책을 펼치는 BIG 3사는 생산 감소, New Domestic 들은 부품 현지 조달 확대로 큰 폭의 부품 수입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컴퓨터 (813)	소폭 증가	- 美 대선, 베이징올림픽으로 노트북 중심 회복 기대 - 윈도우 비스타의 교체수요 건인여부가 관건
석유제품 (133)	현상유지	- 석유 수요의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2008년에도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지속될 전망 · 개도국의 수요증가 추세속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에 대한 소극적 태도, 비OPEC국가의 증산여력 한계 - 반면, 지정학적인 불안요인의 악화(이라크, 나이지리아 등에서의 내전,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 시나리오 등), 기상이변에 의한 원유공급 차질 예상 등으로 미국의 수입증가에 따른 대미수출 현상유지 예상됨
선박류 (7461)	현상유지	- 시추선등 해양구조물 대미국 신규인도 물량은 2007년과 거의 동일

자료원 : 바이어(37)개사, 주재상사(23)개사, 조사기관(3)사, 기타(1) 등

나. 주요 품목별 전망근거

1) 일반기계 : 소폭증가

- 원화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로 건설 중장비, 공작기계류 등 주력 수출제품의 수출 증가율 둔화 전망
- 건설 중장비는 미국 건설 경기 하락으로 대미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기계류 수출 증가를 이끌었던 공작 기계의 대미 수출 증가율은 미 제조업 경기 하락으로 약 5%대에 머물고 있음
- 특히 그 동안 50%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던 원동기 및 펌프류 수출 증가율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전체 기계류 대미 수출 증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
-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섬유 및 화학 기계 수출 급성장
 - 그간 한국의 기계류 주력 수출 제품이었었던 건설 중장비, 원동기 및 펌프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용 장비와 섬유 및 화학기계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전체 기계류 수출이 낮지만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음.

2) 자동차 : 소폭감소

- 현대자동차가 북미에서 판매하는 9개 차종 중 주력 차종에 해당하는 신타페와 소나타 2개 차종을 알라바마 공장에서 생산중이어서 한국으로부터의 직수출 물량은 감소되는 추세

- * 현재 미국 판매물량의 약 절반, 캐나다 시장의 15% 정도가 알라바마에서 생산중
- 수출물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미국 전체에서 판매되는 한국 브랜드 자동차 물량은 소폭 증가 예상
- '07년 1~10월중 미국내에서 판매된 한국산 자동차는 전년 동기대비 약 2.2% 증가한 64만6천대로 나타나 미국의 경기정체 및 미국산 자동차들의 고전에도 불구하고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승용차부문이 약 7% 판매 감소한 반면, 소형트럭 및 SUV(Sports Utility Vehicle)의 판매가 약 18% 성장하는 등 부문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음.
- SUV는 신모델 출시(Veracruz, 앙뜨라제)와 산타페의 현지생산으로 판매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3) 철강 : 소폭감소

- 자동차 및 주택경기 하강에 따른 강판, 건축자재 수요 위축으로 관련 철강제품의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강관류, 철구조물 등의 철강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2008년 철강제품의 수출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산 주력제품인 냉연강판, 열연강판의 경우 서브프라임 사태로 미국 현지에서의 수요 감소와 환율 인상, 운임 상승 등이 이어져 수출이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유전 개발을 위한 라인파이프, 기름수송을 위한 OCTG 파이프 등은 유가 상승에 따른 유전개발 활황으로 수출이 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캐나다로부터 미국에 이르는 대형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가 취소되는 바람에 파이프 수출 증가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건축자재 관련 철강제품의 경우 국산은 포스코 또는 일본 제품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브라질, 인도, 중국산의 핫코일이 한국산 대비 약 30% 정도 가격 우위에 있어 최종 건축자재 제품 역시 가격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임.
- 건축 경기 활황 시에는 이러한 가격 열위가 극복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바이어들이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해 구매 물량을 상당히 줄이고 있어 건축자재 관련 철강제품은 하반기 수출전망이 어두운 실정임.
- 반면 철구조물에 해당하는 H빔의 경우는 수출이 대폭 신장하고 있음.
- 철강제품은 수출에 있어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마이너스 요인이 다소간 강세를 보여 전반적으로는 2008년에 소폭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 특히 중국산 철강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이며, 지난 3~4년간 중국산을 구매한 상당수의 바이어들이 품질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어 품질이 유지되는 한국산으로 다시 구매선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음

4) 석유화학제품 : 소폭증가

- FTA 체결 이후 관세절감 효과로 수출물량 소폭증가
 - 한미 FTA 협상결과 자일렌은 5% 관세 즉시 철폐, 요소(6.5%) 및 실리콘오일(6.5%)은 3년, 톨루엔(5%)은 5년, 페놀(5.5%)은 10년으로 양허됨.
- 기초유분 및 석유화학 중간원료 등의 대미 수출 호조가 지속될 전망
 - 기초유분의 경우 2007년 1-9월 누계 실적이 전년 대비 34.6%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석유화학 중간원료는 2007년 하반기부터 증가 추이를 보이기 시작해 2007년 1-9월 누계 실적이 전년대비 346.5%로 급신장됨

5) 섬유

- 2007년 1~9월까지의 의류 및 직물의 대미수출 증가율은 각각 -15%, -5%로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고 섬유원료(17.4%) 및 섬유사(0.6%)는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음.
- 한미 FTA로 인한 의류 및 직물분야의 관세인하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기반의 취약 및 기반 복구에 따른 시차 등의 영향으로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니트제품, 양말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전 품목에 걸쳐 기존 10% 이상의 감소세를 역전시키기에 무리가 있는 여건임.
- 이에 따라 의류는 '07년 대비 6% 감소, 직물은 4% 전후의 감소세가 예상되는 등 섬유류 전반에 걸쳐 2007년 대비 4% 정도의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6) 평판디스플레이 : 대폭증가

- 2009년 예정된 미국 방송의 디지털화와 美 대선, 베이징올림픽 등 영향으로 LCD TV 중심으로 신규 구입 및 교체수요 확대
 - 특히 호텔, 레스토랑 중심으로 LCD TV 교체 가속화
 - LCD TV 주요 수요층이 고소득 계층으로 서브프라임 부실에 따른 신용경색과 고유가로 인한 소비감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평판디스플레이 가격인하는 완료된 반면, 판매량은 늘어 업계의 수출금액 대폭 상승 예상

- 현재의 완제품 가격인상은 주로 완제품 제조업체의 마진을 줄임으로써 발생하고 있으며, 평판디스플레이 부품가격 하락은 2007년도 거의 완료된 상황

7) 무선통신기기 : 소폭증가

- 미국 내 3G 폰, 뮤직폰, 스마트폰 보급 확대 및 휴대폰 교체 수요 증가
 - 통신서비스사의 마케팅 강화 및 가격 인하로 핸드폰 보급 확대
 - 신규 차세대 통합형 멀티미디어 휴대폰 인기 폭등으로 교체 수요 증가
예) 애플 아이폰, 삼성 비온세 뮤직폰, 삼성 블랙잭 스마트폰, LG 초콜렛폰, LG 프라다 폰, 블랙베리 스마트폰 등의 멀티미디어 통합 기능 강화 신제품들의 인기 상승
 - 미국 내 한국산 삼성, LG 휴대폰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로 시장점유율 증가
- 미국내 경쟁 업체간 '전략 동조화'로 대미수출에 소폭증가가 예상됨
 - 미국시장 점유 TOP 5 업체들 모두 유사한 타겟 시장에 '고가+저가'의 2원화 마케팅 전략 펼쳐 저가 경쟁을 통한 수익성 하락 우려
 - 글로벌 2위 업체인 모토로라의 부진이 2008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 미국시장 진출 업체들의 반사 이익 예상

8) 반도체 : 소폭 증가

- 휴대폰, MP3, 게임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Flash 메모리 수요 확대 지속
 - 전통적인 PC수요가 다소 위축되고 있는 반면, 개인 휴대용 멀티미디어 장비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으로 Flash 메모리 수출확대 예상
- 美 대선, 베이징올림픽 특수로 PC 경기가 다소 회복될 조짐이나, DRAM 시장은 공급과잉 양상의 해소가 최대 관건

9) 가전

- 최대 수출품목인 컬러 TV(2006년 대미수출 5억3백만달러)의 경우, 2007년 중 15% 전후의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나 삼성, LG 대형 TV에 대한 미 소비자 단체의 호평, 한국내에서 생산, 공급되는 대형 TV 판넬에 대한 미국시장내 수요 증대, 현행 5%에 달하는 디지털 TV 미국 관세가 한미 FTA 발효시 0% 관세화 되는 등의 영향으로 10% 전후의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됨.
- 수출 호조세인 세탁기(2006년 대미수출 1억2천만달러)도 2007년 중 수출 급증세(48% 전후)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는 LG 트롬세탁기의 미국 내 인기에 따른 것으로 LG 등 한

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 업계 및 소비자 호평이 2008년도에도 지속되고, 아울러 한미 FTA 발효시 소형 세탁기에 대한 현행 1.9% 관세가 철폐 예정에 있는 등 2008년도 세탁기의 대미 수출도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기타 주력 수출가전제품인 진공청소기(2006년 대미수출 2억2백만달러), 전자레인지(2006년 대미수출 1억4천5백만달러), VCR(2006년도 대미수출 1억3백만달러)도 2007년의 4~10% 증가세를 유지해 갈 것으로 전망됨.
- 이상 여건을 종합해 볼 때, 2008년도 한국의 대미 가전제품 수출은 2007년도의 11.9% 감소에서 벗어나 2008년에는 12.0%가 증가한 21억4천2백만달러 내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10) 자동차 부품: 소폭증가

- 2006년 이후 자동차 부품 신규 계약 수주가 증가하였으나, 실제 제품 양산/선적은 계약 후 약 2~3년이 지나야 발생하는 자동차 부품 산업 특성 상, 2008년 하반기 이후가 되어야 수출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완성차 업체들의 글로벌 생산이 가속화되면서, 수주는 미국의 본사에서 받더라도 실제 선적은 멕시코, 브라질, 인도 등 세계 각지로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대미 수출 물량은 계약 내역보다 작게 집계됨.
- 빅 3사는 향후 2~5년간 생산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예정이며, 미국 내 생산을 계속 늘리고 있는 일본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 부품 현지 조달 비중을 확대할 예정임. 따라서 자동차 부품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11) 컴퓨터 : 소폭증가

- 美 대선, 베이징올림픽 영향으로 노트북 중심으로 회복 양상을 보일 전망
 - 소비자들의 이동 선호가 늘어나면서 노트북 컴퓨터 수요 확대
-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윈도우 비스타가 신규 교체수요를 얼마나 이끌어낼 지가 관건
 - '07년 출시된 MS의 윈도우 비스타가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지못함에 따라 별다른 교체수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과거처럼 OS 출시 1년 후에 기업 교체수요가 일어날 지 불투명

12) 석유제품 : 현상유지

- 한국산 대미 주요 석유 수출 품목은 경유, 휘발유, 항공유(Jet Oil) 등
- 미국 휘발유 값 및 유가 급등에 따라 2007년 1~9월간 대미 수출 누계 실적은 전년 동기 실적 대비 29%에 이르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고유가로 마진이 개선되어 수출 단가 상승
- 석유수요의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2008년에도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지속될 전망
 - 개도국의 수요증가 추세 속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에 대한 소극적 태도, 비OPEC 국가들의 증산 여력 한계
- 지정학적인 불안요인의 악화 및 기상이변에 의한 원유공급 차질 예상
 - 이라크, 나이지리아 등에서의 내전, 핵 개발을 둘러싼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등
 - 기상이변에 의한 2005년 카트리나 급의 대형 허리케인 내습 등으로 석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유가 급등 불가피
- 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세계경제의 경착륙으로 이어질 경우 석유수요 증가세의 급격한 둔화로 인한 유가급락 가능성도 있어 전반적여건 고려할 때, 대미 수출 현상 유지 예상됨.

13)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 현상유지~소폭증가

- 한국 대미 선박류 수출중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추선 대규모 인도물량은 2004년~2005년을 통해 일단 종료되었으며, 2008년의 인도물량은 2007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시추선의 발주는 미국 본사를 통해 이루어지나 실제 인도장소는 세계 각지에 걸쳐 있어 대미 수출실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통계상의 문제가 있음.
- 시추선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플랫터블 선박 역시 2007년 8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2.54% 감소한 169만불 수출에 그쳤으며 저렴한 중국산 제품에 시장이 잠식되고 있는 상황으로 내년도 전망은 부정적임.
-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컨테이너선, LNG선등의 경우 미국내 수입 수요는 거의 없음

4. 2008년 수출유망품목

1) 공작기계 (MTI 723)

- 미 공작기계 시장은 지속적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미 공작기계 협회와 제조기술협회에 따르면 2007년 8월까지 미 공작기계 시장 규모는 26억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신규 제품 출시와 구매가 이루어지는 미국 최대 규모의 공작기계 전시회 IMTS 2008이 오는 2008년 9월에 개최될 예정이어서 한국 기계 수출업체들은 기계 주문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H사 미 현지법인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공작기계 전시회가 개최되는 해는 개최되지 않는 해보다 많게는 2배 이상 기계 주문량이 몰리고 있어 동 전시회에 기계 판매를 위해 마케팅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2) 철강관 (HS/MTI 6141)

- 유가 상승에 따른 신규 유전 개발로 라인파이프 및 기름수송용 파이프(Oil Country Tubular Goods; OCTG)의 수요가 늘고 있어서 철강관의 수출이 지난해에 있어 두 자리 수로 증가하고 있음
- 유전개발은 유가 상승으로 미국내 물가상승 압력이 심해지자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석유 이외에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 유전의 개발을 통해서 공급물량을 늘리려는 시도이며, 이로 인해 유전개발 및 기름 수송을 위한 강관류의 수요가 늘고 있음

3) 라텍스 등 합성고무 (HS 40021100)

- SBR(스티렌 부타디엔 고무), 라텍스 등 합성고무
 - 미국의 SBR, XSBR, 라텍스 등(HS40021100)제품 수입은 2006년 기준 총 5천4백만달러에 달함
 - 한국의 대미 수출은 2007년 1~8월 누계 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무려 1,234%의 급격한 신장률을 보이고 있어, 2008년에도 대미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4) 방송용 통신기기 (MTI812200)

- 한국의 2007년 1~9월 누계 대미 수출 실적은 총 550만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무려 163.4%의 급격한 신장률을 보임

- 3G 기술보급 확대, 차세대 통신망 보급 확대에 따른 미국 휴대폰시장 다변화에 따른 방 송용 통신기기 인기 상승으로 대미 수출 유망 품목으로 평가됨.

5) 석유화학중간원료 (MTI2120)

- 초산비닐 등 각종 석유화학중간원료에 대한 대미수출은 2007년 1~9월 누계 실적이 996 만달러에 달함.
-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46.5% 급신장된 성장률로 2008년에도 이와 같은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6) 반도체 제조용 장비 (MTI 7321)

- 2007년부터 수출 대폭 확대추세('07.1~9월 138.2% 증가)
- 2008년 반도체 장비 교체시기가 도래하여 수출물량 확대 기대
 -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도 기존 8인치 장비에서 12인치로 교체 진행

7) 평판 디스플레이 (MTI 8361)

- 2009년 미국 방송의 전면 디지털화와 아울러, 美 대선, 베이징 올림픽 등 특수 시즌으로 LCD TV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
- 서브프라임 부실에 따른 신용경색, 고유가 등 소비축소 원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고 소득층이 주요 수요자이며, 가격하락은 거의 완료된 반면 공급물량이 확대되어 수출금 액 상승 전망

8) 서스펜션 시스템과 부품(HS코드 870880)

- 서스펜션 시스템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
 - 승차감, 핸들링 향상 및 차량 안전과 관련된 소비자 욕구의 증대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
 - 차량 무게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연비 규제 충족을 위한 차량 경량화 진행 시 가장 먼저 디자인 및 소재 변화가 발생하여 신규 진출 가능성 높은 분야
- 북미지역의 서스펜션 시스템/부품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32.3%의 높은 성장률을 보 이고 있으며, 1~9월 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685.2%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전 년 동기 대비 약 8천 7백만 달러 증가한 9,957만 달러 기록 중

9) 스티어링 부품(HS 870894)

○ 스티어링 부품 수입 급증

- 870894(운전대, 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과 그 부분품)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5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체 자동차 부품 수입 증가율 3.6%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것임.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역시 209.9%가 증가한 7천7백만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이 분야는 아직 중국 등 저임 노동 국가들의 추격이 쉽지 않은 분야로, 선진국들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

10) 가전분야 수출유망상품

○ LCD TV 및 Digital TV

- TV의 경우 현재 한국산 제품이 일본산에 비하여 가격이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FTA를 기점으로 TV와 TV용 LCD의 관세가 인하될 경우 관련 LCD 및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이미 한국산 LCD와 관련 부품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현지 소비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Digital TV의 경우에도 관세 인하 등 FTA 타결효과에 따라 시장내 경쟁력을 추가 확보

○ 소형세탁기, 소형냉장고

- 소형세탁기나 냉장고의 경우 현행 1.4~1.9% 관세가 FTA 개시 즉시 0%로 조정되므로 가격인하 효과에 따른 판매증가 예상.

중국지역

1. 2008년 중국지역 경제 및 시장여건

가. 낙관적 요인

☐ 중국, 무역수지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입확대정책 추진

- 중국정부는 무역수지불균형 해소를 위해 2007년부터 수출억제 뿐만 아니라 수입확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이테크 제품과 핵심설비, 해외선진기술, 중국인이 선호하는 일상소비품에 대한 수입을 내년에도 크게 확대할 계획임.
-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정부는 16개 주요 기술장비 핵심분야 부품수입에 대한 세 수우대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 확대

- 2002~2006년간 가격요소를 제외한 중국의 1인당 평균급여소득실질증가율이 12%대에 달하는 등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실질급여소득이 1979년 개혁개방이래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3급 도시와 농촌지역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대도시를 비롯한 주요도시의 상권이 크게 정비되는 한편, 소득증가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수입산에 대한 소비자 구매력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 홍콩·대만 내수 회복세

- 홍콩은 지난 3년간 가장 낮은 실업률(4.1%)과 증시고조 등에 따라 '07.3분기까지 7.1%대의 성장세를 발판으로 급속한 내수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대만은 신용카드 부채 문제 개선으로 민간 소비심리가 빠르게 살아나는 가운데 내년도 총통 선거 이후 내수성장을 기대하고 있음.

나. 비관적 요인

☐ 중국의 수출증가율 완화에 따른 우리의 대중수출 감소우려

-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품의 상당수가 원부자재이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주요 수입처가 중국투자 한국계기업이라는 점에서 가공무역제한 등 수출제한조치로 중국의 해

외수출이 줄어들 경우, 수출품 생산용 한국산 원부자재 수입도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 일부품목에 국한된 대중국 수출구조

- 2005년 우리제품의 대중수출 상위 5대 품목이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9%에 달했으며 2006년에는 상위 5대품목비중이 37.6%로 증가함.
- 2007년 1~9월간 우리기업의 대중수출액에서 상위 5대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8.3%로 2006년보다 수출품목 집중도가 심화됨.
- 중국산 제품의 품질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중국산이 수입산을 빠르게 대체하는 가운데 우리의 대중 수출품이 일부제품에 집중되는 현상은 갑작스러운 수출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홍콩, 주변지역 성장으로 도시 경쟁력 약화

- 홍콩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전시컨벤션, 물류 산업 등에 있어 주변 도시의 성장으로 치열한 경쟁 상태에 돌입했으며, 이에 따라 홍콩 경제에 전반적으로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전시컨벤션 산업은 마카오가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물류 측면에서 싱가포르 및 전(심천)항이 홍콩항의 물동량을 곧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대만, 급격한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소비 및 투자 심리 약화

-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최근 석유제품, 식료품,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인상이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2. 2008년 對중국지역 우리나라 수출전망

가. 총괄표

구 분	단 위	2007년	2008년
금 액	백만불	114,713	130,365
증감률	%	13.1%	13.6%

나. 전망근거

1) 밝은 면

□ 중국, 소비시장 급증에 따른 호조

- 내수 관련 품목은 수입증가세 이어질 전망
 - 중국 소비시장이 매년 10% 이상대의 성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이 강화되면서 내수 관련 품목의 수입증가세는 이어질 전망
 - 고급 디지털 가전, 고급 디스플레이, 무선 통신기기, 수입차 등의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홍콩, 견실한 경제성장 속 10대 인프라 개발 추진으로 상승 탄력

- 홍콩은 2002년부터 견실한 성장 지속해 오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교통시설, 국경지역 설비, 교외지역 재개발을 목적으로 미화 320억불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할 계획에 있어, 내수시장이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됨.

□ 대만, 소비 및 투자심리 개선과 반도체 단가 상승 기대

- 카드 부채 및 정치 불안 문제가 다소 안정되면서 소비 및 투자심리가 되살아나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수입수요도 증가할 전망
- 특히 우리나라의 對대만 수출 최대 주력상품인 반도체의 경우, 금년도 가격 하락으로 물량 증가세에 따른 이익을 크게 보지 못하였으나, 내년도 가격 반등이 전망되고 있어 반도체 수출액 증가에 힘입어 전체 수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2) 어두운 면

□ 중국, 수출억제 정책 및 긴축정책 영향

- 수출억제 정책으로 원부자재의 대중수출에 영향
 - 중국의 과대한 외환보유고, 무역수지 흑자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증치세 환급을 인하, 가공무역 금지 등의 조치가 이어짐에 따라 일부품목의 수출 둔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특히 현지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원부자재 수출도 중국의 대외수출 감소를 위한 노력에 따라 관련 수요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긴축정책 이어질 듯

- 물가상승, 부동산 급등, 고정자산 투자 급등세 등으로 2008년 긴축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금리 인상과 기준율 인상 등의 시장의 반응을 살피며 소폭으로 여러 차례 인상될 것으로 보임.

□ 홍콩, 주요 수출품목 가격 경쟁력 약화 및 수출 감소세

- 지속적인 원화강세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따라 우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대홍콩 주요 수출품목인 핸드폰, 컴퓨터 제품이 '07년 3분기 기준 각각 -8.7%, -37.7% 감소세를 보여 수출품 다변화 전략 필요

□ 대만, 원화 평가절상 및 한류 열기 약화

- 對 대만달러에 대한 원화가치가 지속적으로 절상되고 있어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대만 지역에서의 한류 약화로 '한류 마케팅' 효과도 점차 반감되고 있음
- 대만은 한류마케팅 효과가 매우 큰 지역으로, '00년 이후 對대만 소비재 수출액의 10% 이상이 한류 후광으로 인한 수출로 보고됨

다. 종합의견

□ 중국

○ 대중 수출 15% 이상의 증가세 이어갈 전망

- 일부 품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나, 대중수출 증가세는 이어지며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수요가 급증하는 내수 관련 품목의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며, 석유화학 제품은 중국의 자급률 증가, 철강산업은 공급과잉으로 대중 수출의 점진적인 감소세 예상

○ 중국의 투자, 소비, 수출 동반호조 보일 듯

- 중국 경제는 수출 둔화와 물가상승에 따른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확대와 소비 증가에 힘입어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중국 경제성장률은 2007년 11%, 2008년 10% 수준의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중국 내수 활성화로 내수부문의 확대 요인 주시할 필요

-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소비기반이 확충되고 있어, 중국정부의 내수 진작책도 수출둔화의 충격을 내수부문으로 상쇄해 나갈 것임.

○ 중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

- 중국 경제의 고성장과 더불어 물가상승률도 연간 상승률 4%선에 이를 것으로 보여 중국의 '고성장- 고물가'의 경기 과열 재현 우려
- 10월 CPI 지수가 6.5%로 반등하며 중국 정부 목표치(3.0%)를 크게 웃돌고 있어, 중국이 이미 원만한 인플레이션 시대로 진입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 중국정부는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상, 수출억제책, 과잉투자해소 등 종합적인 정책을 구사하고 있음.

○ 위안화 평가절상 속도 낼 듯

- 위안화 평가절상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최근 달러당 7.45를 돌파함. 중국의 과도한 외환 보유고와 무역흑자 감소를 위해 위안화 평가절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홍콩

- 홍콩 경제의 건실한 기초, 세계 투자자금의 홍콩 유입 증가세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홍콩의 수입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전반적으로 호조요인이 부진요인을 상쇄할 것으로 보여 내년도 對홍콩 수출은 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단, 홍콩은 반도체, 무선통신기계, 컴퓨터 등의 주요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50%가 넘기 때문에, 주요 품목의 수출 여건에 따라 전체 수출량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대만

- '06년까지 아국의 대만 수출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IT제품과 한류 열풍에 따른 소비재 수출에 힘입어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높은 수출 성장세를 보여 왔음.
- 그러나, 최근 이러한 효과가 축소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높은 수준의 수출 증가세는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 對대만 수출은 올해와 비슷한 5% 수준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임

3. 품목별 수출전망

가. 주요 품목 수출전망

품목명 (MTI코드)	'08 연간전망 ('07 대비)	전망근거 요약
일반기계 (71,72,73,79)	소폭증가	- 중국제품과 격차 감소, 기술은 선진국에 가격은 중국제품과의 경쟁 열위인 반면, 홍콩을 통한 우회 수출 및 대만 수출 증가 전망
자동차 (741)	소폭증가	- 중국, 한국산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따라 완성차 수요증가 및 위엔화 평가절상 및 수입관세율 하락으로 인한 가격 인하효과 수혜 - 홍콩, 대만은 일본 등 경쟁국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시장여건 개선 어려움
철강제품 (61)	소폭증가	- 중국의 철강 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자체 생산량이 감소세에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입관세율로 대폭 증가 어려움
석유화학제품 (21)	소폭증가	- 중국 경기호조로 수요 증가세나, 자체생산량 역시 증가하고 있어 수출효과 상쇄 - 홍콩 역시 환경문제 등으로 특수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섬유류 (4)	현상유지	- 한국 섬유제품은 주로 중국 OEM 의류가공업체에 공급되어 수입상황 변동이 크지 않음.
평판디스플레이 (8361)	대폭증가	- 중국, 2008년 말 평판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입세율 혜택 종료 앞두고 2008년 하반기 수입급증 예상 - 중국 소득증가 및 대만 내수 회복 등으로 평판디스플레이 제품수요가 빠르게 증가 전망
무선통신기기 (821)	소폭감소	- '06년 10월 이후 지속된 대중국 무선통신기기 수출저조 추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 - 자체 생산기술수준 제고로 해당제품의 대중국 수출이 향후에도 점차 줄어들 전망
반도체 (831)	소폭증가	- 중화권 전지역에서 반도체 수요 증가 전망
가전 (82)	소폭증가	- 중국내 고급 디지털가전 수요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산 상품 인지도 상승 - 홍콩·대만은 중국산 저가유입 및 홍콩경유 재수출 급감으로 감소세 전망
자동차부품 (742)	소폭감소	- 중국내 부품 현지화 비율 증가에 따라 핵심 부품 수입만 유지되고 전반적인 부품 수요는 감소할 전망 - 중국의 증치세 환급을 인하 등 정책적인 변화에 따른 자동차 부품 수입 감소될 듯

컴퓨터 (813)	소폭감소	- 중국내 생산 확대 - 전지역 가격 경쟁 치열
석유제품 (133)	소폭증가	- 중국의 석유 공급 부족, 석유수입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홍콩 경유 재수출도 늘어날 전망
선박류 (7461)	대폭증가	- 중국 조선업 호황에 따라, 납기일 준수를 위해 설비 및 원자재 투입이 증가할 전망 - 홍콩·대만 역시 내수회복 및 물류시장 확대에 증가 가능성 큼

자료원 : 바이어(50)개사, 주재상사(43)개사, 조사기관(8)사, 기타(8) 등

나. 주요 품목별 전망근거

1) 일반기계 : 소폭증가

- 중국 자체 생산량 증가 및 기술 향상
 -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 진출로 중국 자체 생산량 증가 및 기술 향상에 따라 수입 수요는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대만, 양대 디스플레이 업체 공장 신설
 - AUO 및 CHIMEI 신규공장 설립 및 Innolux의 6세대 공장 설립에 따라 관련 설비 수출 증가 전망

2) 자동차 : 소폭증가

- 중국내 'Made In Korea'의 한국산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따라 완성차 수입 증가세 유지
 - 한국산이라는 수입차의 고급이미지가 형성되면서 완성차 수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차종의 경우 주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함.
- 위안화 평가절상 및 수입관세율 하락 호조요인으로 작용
 - 위안화 평가절상과 수입관세율 하락 등 가격 하락요인으로 수입차 가운데 최근 현대·기아차의 수입증가율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신차 출시에 따라 내년도에도 수입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보임.
 - 현지 생산되는 완성차와 수입 완성차간의 차별화 전략 등을 통해 수입수요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철강제품 : 소폭증가

- 중국 정부의 철강 산업 구조조정
 - 대형 철강업체들의 구조조정(합병)으로 중국 자체 생산량은 감소하는 반면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중 수출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수입품의 경우 수입관세(증치세 17%)로 인해 중국 업체들의 수입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임.

4) 석유화학제품 : 소폭증가

- 중국내 수요증가세는 유지되나, 자체 생산확대로 인해 최근 몇 년간과 같은 급증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홍콩의 경우 환경문제로 인한 특수화학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만은 벤젠 등의 제품 수출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5) 섬유류 : 현상유지

- 중국내 중고급 섬유제품 및 기능성 섬유제품의 디자인능력 및 개발생산 능력면에서 한국산이 우수성을 보이고 있어, 중국가공업체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이들 가공업체의 매년 생산량은 비슷하다고 함.
- 홍콩의 경우 최근 베트남으로부터의 섬유 수입이 대폭 확대되고 있어 치열한 경쟁국면 돌입

6) 평판디스플레이 : 대폭증가

- 중국의 평판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세 및 수입부가세 면세혜택이 '0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세수혜택 종료 전에 수입수속을 마치기 위해 해당기업들이 '08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평판디스플레이 수입을 크게 늘릴 것으로 전망됨.
- '08년 전세계적으로 평판디스플레이 수요가 전년대비 약 30% 증가할 것이나 생산증가율은 20%로 수요증가율보다 낮게 예상되면서 한국산 평판디스플레이의 대중국 수출도 낙관적으로 전망됨.
- 대만 등지에서도 한국 제품의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7) 무선통신기기 : 소폭감소

- '06년 10월 이후 우리기업의 대중국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대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8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 중국은 무선통신기기 생산대국으로 최근 몇 년간 자체 생산기술수준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우리제품의 대중국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음.

8) 반도체 : 소폭증가

- 시장조사기관인 isuppli는 2008년 전세계 반도체 시장수요가 전년대비 9%대의 증가율을 보이며 2007년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중국내 기술수준 제고로 자국산 반도체가 수입산을 대체하는 현상이 서서히 대두되나, 내년 한국산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은 올해보다 다소 높은 21~22%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중화권 전지역에서 컴퓨터, PMP 등 반도체를 사용하는 제품의 증가가 예상됨.

9) 가전 : 소폭증가

- 중국내 생산되는 디지털 가전제품의 부단한 품질향상과 기술수준제고로 인하여 수입제품에 대한 수요가 미미한 편이나, 일부 프리미엄급 가전제품군에서는 수입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추세임
- '07년 6월 1일부터 소형가전제품의 관세율 대폭 인하(15%→8%), 수입산의 가격인하 효과
- 홍콩·대만은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에 따른 경쟁 악화와 홍콩 경유 재수출품 급감으로 감소세가 전망됨

10) 자동차 부품 : 소폭감소

- 중국, 부품의 현지화 비율 증가
- 원가절감을 위한 부품 현지화 비율 증가에 따라 핵심 부품 수입을 제고하고는 전반적인 일반 부품 수요는 감소할 전망
- 중국 바이어, 품질과 가격에 대한 까다로운 요구조건 많아지는 경향
- 현지 바이어는 완성차 업체의 원가절감에 노력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부품도 품질과 함께 가격경쟁력을 유지해야만 안정적인 수요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함.
- 일부 자동차부품은 유럽의 자동차 부품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상승이 이뤄지고 있어,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중국내 현대·기아차 업체의 판매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
 - 현지 완성차 업체(현대·기아)의 판매부진에 따라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의 부품 수요 감소
- 중국정부의 정책적 영향
 - 중국의 자동차부품의 현지화 장려책 등 정책적인 변화에 따른 자동차 부품 수입 감소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

11) 컴퓨터 : 소폭감소

- 중국 컴퓨터 제조업체의 제품 경쟁력 제고와 해외 유명 브랜드의 로컬화에 따른 가격인하로 수입산에 대한 수요가 미미함
- 중화권 전 지역에서 가격 및 기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반적으로 호조요인보다는 부진요인이 큰 품목으로 수출 감소세가 전망됨

12) 석유제품 : 소폭 증가

- 중국의 지속적 경제 성장으로(특히 국내 자동차 업체의 급성장으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석유 제품의 재고가 감소하고 석유생산도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해 수입량 증가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됨
- 다만, 대만의 원유정제 시설 확충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낮아져 對대만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13) 선박류 : 대폭증가

- 중국 조선업의 호황
 - 중국 조선소는 향후 3년간의 수주량을 기 확보한 상태임. 이에 따라 납기일에 맞추기 위해서는 관련 기자재를 수입해서라도 선박을 건조, 선주에게 인도해야 되는 실정임.
 - 또한 내년부터 추가로 수주하는 오더량은 그야말로 시간과의 전쟁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인민폐의 對美달러 강세는 원가상승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조선소에서는 연간 선박 건조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기자재의 부족분은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실정임.
- 홍콩·대만 역시 내수회복과 물동량 증가에 따른 물류시장 활황 등의 요인으로 선박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4. 2008년 수출유망품목

1) 평판디스플레이 (MTI 8361)

- 중국 평판TV 판매가 지속 증가하는 등 내년도에도 평판디스플레이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중평판디스플레이 수출 규모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2008년 12월 31일부로 평판디스플레이에 대한 중국의 관세 및 수입부가세 면세 혜택이 종료되면서 사전에 수입수속을 마치려는 수요가 몰려 내년도 하반기에 수입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 합성수지 (MTI 2140)

- 2008년 올림픽, 2010년 엑스포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과 부동산 붐에 따른 건축시장 활황 그리고 가전·자동차 생산 증가 등에 따라 합성수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

3) 무선통신기기부품 (MTI 8128)

- 이동통신 가입자 수의 꾸준한 증가세로 핸드폰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부품 수요 역시 증가 전망
- 특히 대만시장에서 한국 브랜드 인지도와 품질이 인정받으면서 시장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임.
 - 삼성, LG 등 한국산 휴대폰의 대만내 시장점유율은 20% 수준에 달하며, 휴대폰 신규서비스 확대에 교체 수요 꾸준히 발생 전망

4) 선박류 및 부품 (MTI 7461 / 7463)

- 중국은 신규 선박 수주량 세계 1위로 부상하며, 향후 3년간의 수주량을 기 확보한 상태로, 납기일 준수를 위해 설비 및 원부자재 수입도 불가피한 실정임.
- 또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위안화 평가절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기 수주된 선박 제조를 위해 필요한 원부자재는 가급적 내년 초 대량 수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5) 직접회로 반도체 (MTI 8311)

- 최근 반도체가격 하락 및 대만, 일본 등 경쟁국의 대중 시장 진출 확대 그리고 중국 자체 생산량 증가로 과거와 같은 대폭 증가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중국내 핸드폰 및 컴퓨터 산업 등 반도체 수요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우위를 보이고 있어 증가세는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아시아대양주지역

1. 2008년 아시아대양주지역 경제 및 시장여건

가. 낙관적 요인

☐ 베트남, 인도 등 주요국의 높은 경제성장률 시현

- 주요국의 높은 성장세로 대다수 국민들이 경제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며, 소비심리가 빠르게 회복되는 중
 - 인도는 지난 5년간 7~9%대의 성장률을, 베트남은 연평균 7%대의 고도 성장궤도에 진입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역시 2008년 7%대에 육박할 전망

☐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발효에 따른 대 아세안 수출 증대 기대

- 한-싱가포르 FTA에 이어 아세안 지역과의 FTA 상품협정 발효로 한국 상품의 아세안 시장점유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한-싱가포르 FTA 발효 이전 1년간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간의 교역액은 134억달러였으나, 2006년 3월 협정이 발효한 이후 2007년 2월까지 1년 동안 양국의 교역액은 158억달러로 확대된 바 있음.
 - 2007. 6. 1일부로 발효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으로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 화학제품, 철강, 기타 제조업 부문의 한국 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 지속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증가와 소득수준의 향상

-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계류와 공장건설 및 운영자재 수입 증가로 이어질 전망
- 국민들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구매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고가품 수입 수요가 증가할 전망

나. 비관적 요인

☐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물가 증가 우려

- 휘발유 가격상승 추세에 따라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 경기 위축 요인이 될 수 있음.

- 방글라데시는 원유 및 철강 등 주요 원자재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2007년 7~9월간 2차례 홍수로 생필품 가격이 50~100% 급등한 바 있음.
- 뉴질랜드는 높은 재정흑자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 영향을 우려해 정부지출에 어려움을 보임. (이자율 8.25%로 OECD 중 최고)

□ 서브프라임 부실에 따른 세계 금융시장 불안

- 2008년 세계경제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긴축 정책 영향으로 2007년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3.5% 성장률 예상
- 뉴질랜드의 경우 최근 10여개 금융기관 파산에 이어 추가 도산 가능성 있음.

□ 국가별 정치적 불안정성 여전히 상존

- 2007년 9월 양곤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사태와 미얀마 군정의 무력진압으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조치가 강화됨.
- 파키스탄의 경우, 해외망명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베네지르 부토 전 총리를 겨냥한 대규모 폭탄 테러 발생
- 130여명이 사망한 데 이어 지난 11.3일에는 무사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혼란 가중

2. 2008년 對아시아대양주지역 우리나라 수출전망

가. 총괄표

구 분	단 위	2007년	2008년
금 액	백만불	53,416	61,428
증감률	%	16.3%	15.0%

나. 전망근거

1) 밝은 면

□ 산업발전 및 인프라 확대에 따른 기계류 수출 급증세 유지

- 인도, 베트남 등 주요국의 제조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기계류의 수출이 지난해에 이어 급증세 유지할 전망

□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른 내수소비 증가 예상

-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증권시장 호황, 높은 공공부문 임금인상 등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소비심리가 크게 호전
- 말레이시아의 경우 휴대폰, 컬러TV, 모니터 등 내수소비 분야에서 한국산의 높은 수출 증가 예상

□ 한국의 현지 투자진출 확대 및 현지 매출 지속 증가

- 베트남 및 필리핀은 금액기준 한국이 외국인투자 1위국
- 진출확대에 따라 한국산 기계, 부품 등의 수출 동반 확대 추세
- 인도의 경우,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등 주요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 매출이 매년 15~30% 이상 성장, 자동차부품 및 가전 부품 등 한국의 부품 수출을 견인

□ 한류의 거듭되는 확산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

- TV드라마 중심의 한류 확산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소비지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
- 태국의 경우 온라인 게임 등 한국산 IT제품에 대한 선호도 급상

□ 한-싱가포르, 한-아세안에 이어 한-인도 CEPA 협상 타결 확실히

- 한-인도 CEPA 협상이 내년초 타결이 확실히 되고 있으며 양국 교역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인도측은 관세 즉시철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어서 대부분의 품목이 5년내 철폐 혹은 8년내 철폐 예상이므로 대 인도 수출증진효과는 즉각적이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발생할 전망

2) 어두운 면

□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 지속 증가

-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이 지속 증가하여 우리 제품과의 경쟁 심화
- 2006년 중국의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은 9%로 1위, 한국의 2.75% 대비 3배 이상이며, 가전, 핸드폰, 기계류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전망

□ 원화 강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불안

- 수출경쟁국에 비해 원화의 강세가 심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한국 원화가치가 절상하고 있는 것에 비해 중국 위안화가 안정적이고 엔화도 원화만큼 절상되지 않아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

□ 일부 무역제제 조치 가능성 대두

- 인도는 최근 루피화 절상 등의 이유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된 상황, 이로 인해 반덤핑 과세 등 무역제제의 가능성 있음.
- 2007년 들어 5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바 있음
- 인도네시아의 경우 통관검사 및 수입허가제도의 운영 강화, 기존 수입상에 대한 등급부여 및 통제강화 등 비관세 장벽을 증가시켜가는 추세

다. 종합의견

- 주요 국가별 안정적인 경제성장 및 소비자들의 구매력 강화를 통해 수입시장 확대 기변이 구축된 상황에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비록 비관세 장벽의 강화라든지 현지 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등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나 시장 전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한 수입시장은 자연적으로 성장해 갈 전망
- 다만,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인플레이션 발생우려, 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며, 저가품이 선호되는 가격중심의 시장에서 중국 위안화와 대비 한국 원화 환율 변동이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 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2008년도 세계경제가 2007년에 비해 다소 둔화 전망이 잇따라 발표되는 등 일부 부정적인 전망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3. 품목별 수출전망

가. 주요 품목 수출전망

품목명 (MTI코드)	'08 연간전망 ('07 대비)	전망근거 요약
일반기계 (71,72,73,79)	대폭증가	- 경기활황으로 산업전반에 걸쳐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가 발생할 전망
자동차 (741)	소폭증가	- 국산 자동차는 도요타 등 일본의 차량점유율에 뒤처져 있고, 잇따른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FTA 효과로 일부 회복 예상됨
철강제품 (61)	대폭증가	- 자동차 생산 급속증가, 건설 호경기에 따른 건설자재 수요증가 등으로 철강제품의 수요 증가전망
석유화학제품 (21)	대폭증가	- 현지 산업발전 및 그에 따른 수요 증가가 현지 생산량을 초과하므로 수출여건 유리
섬유류 (4)	현상유지	- 현지산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 대만, 태국 등의 제품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한국산의 수출 증가율 둔화될 전망
평판디스플레이 (8361)	대폭증가	- 컴퓨터, TV 등 고급제품군을 중심으로 LCD, PDP 등 평판 디스플레이의 수요가 급증 추세
무선통신기기 (821)	소폭감소	- 시장규모 자체는 급속 증가 추세이나 저렴한 핸드폰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낮음
반도체 (831)	소폭증가	- 2007년 중 전세계 반도체시장 불황국면을 접고, 2008년 초부터 시장안정이 회복될 전망
가전 (82)	대폭감소	- 가전제품은 대부분 현지에서 제작되어 공급되어 한국산 수입시장이 상쇄되고 있음.
자동차부품 (742)	대폭증가	- 현지 운행 한국 브랜드 차량의 수가 점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
컴퓨터 (813)	소폭증가	- 중국, 대만 등에 한국산이 밀리는 상황이나, 국별 전자정부 등을 중심으로 시장규모 자체가 급격하게 성장
석유제품 (133)	대폭증가	- 산업발전 본격화에 따라 각종 석유제품의 수요 급증세
선박류 (7461)	대폭증가	- 세계적으로 교역이 활발해 지면서 물동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선박수요 역시 많이 늘어나고 있음.

자료원 : 바이어 188개사, 주재상사 65개사, 조사기관 18사, 기타 12등

나. 주요 품목별 전망근거

1) 일반기계 : 대폭증가

- 경기활황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가 발생할 전망
 - 싱가포르는 2009년 및 2010년 1차, 2차 복합리조트 완공을 목표로, 말레이시아는 제9차 개발계획이 본격화 되면서 건설중장비를 필두로 한 기계 분야의 수요가 예상된다.
- 베트남의 산업화 과정에서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특히 산업기계 및 기초산업기계 에 대한 수요 높음.
 - 중국 및 대만산 경쟁품에 비해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투자진출업체들이 한국산을 선호 하는 경향이 강함.
- 호주의 경우, 광산부문 투자는 다소 둔화될 것이나 주택경기 부활이 예상되고 있어 건설기계 등 산업기계 호조 전망

2) 자동차 : 소폭증가

- 인도의 경우 차량의 수입관세가 워낙 높아 차량의 수입이 현실적으로 불가, 현재도 수출량이 미미한 수준으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인도를 제외한 타 동서남아시아 국가에서는 국산 자동차가 현지생산 일본산에 가격경쟁 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나, 한-아세안 FTA를 통해 가격인하 여력이 생겨 마이너스 성장세를 극복,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철강제품 : 대폭증가

- 자동차 생산 급속증가, 건설 호경기에 따른 건설자재 수요증가,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공 급용 파이프수요 증가 등으로 철강제품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전망

4) 석유화학제품 : 대폭증가

- 현지 산업발전 및 그에 따른 수요 증가가 현지 생산량을 초과하므로 수출여건 유리

5) 섬유류 : 현상유지

- 현지산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 대만, 태국 등의 제품과 경쟁이 심화되 고 있어 한국산의 수출 증가율 둔화될 전망

- 인도 화섬업계의 성장에 따라 대규모의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 전체적 수입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
- 대호주 고급원단 등 수요가 지속되던 부분에서도 시장을 점차 잃어가는 추세, 기존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

6) 평판디스플레이 : 대폭증가

- 컴퓨터, TV 등 고급제품군을 중심으로 LCD, PDP등 평판 디스플레이의 수요가 급증 추세

7) 무선통신기기 : 소폭감소

- 인도 등 서남아를 중심으로 핸드폰 가입자 수 급증함에 따라 시장규모 자체는 급속 증가 추세를 보일 전망이나, 저렴한 노키아폰의 강세로 한국산의 수출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8) 반도체 : 소폭증가

- 2007년 중 전세계 반도체시장 불황국면을 접고, 2008년 초부터 시장안정이 회복될 전망
- 반도체의 주요 수요원은 PC에 들어가는 반도체 공급이며 인도의 PC증가율이 25%를 초과하고 있고, PC 이외에 기타 디지털장비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 수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

9) 가전 : 대폭감소

- 가전제품은 대부분 현지에서 제작되어 공급되어 한국산 수입시장이 상쇄되고 있음.
- 인도의 경우, 역시 현지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고급제품인 PDP, LCD, 드럼세탁기 등을 제외하고는 수입물량 미미

10) 자동차부품 : 대폭증가

- 현지 운행 한국 브랜드 차량의 수가 점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
- 우리의 대인도 자동차부품 수출은 현대자동차 소나타 등의 조립생산에 따른 부품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현대차의 판매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부품수입 증가도 지속될 전망.

11) 컴퓨터 : 소폭증가

- 대부분 중국, 대만 등에 한국산이 밀리는 상황이나, 인도의 경우, 컴퓨터 시장은 노트북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연간 성장률이 100%에 육박
- 이에, 컴퓨터 완제품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 저장장치, 모니터 등 주변장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전망

12) 석유제품 : 대폭증가

- 산업발전 본격화에 따라 각종 석유제품의 수요 급증세

13) 선박류 : 대폭증가

- 세계적으로 교역이 활발해 지면서 물동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선박수요 역시 많이 늘어나고 있음.
- 한국 선박엔진 등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고선박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상황

4. 2008년 수출유망품목

1) 기초산업기계 (MTI 71)

- 제조업 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세로 일반기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세에 있음.
- 필리핀의 경우 2007년 300% 이상 급증세를 시현하고 있음.

2) 건설 및 건축용 자재 (MTI 622)

- 건설경기 활황에 따라 투자수요에 따른 건설 및 건축 자재 수입도 계속 확대될 전망

3) 철강제품 (HS 73)

- 자동차생산 급속증가, 건설 호경기에 따른 건설자재 수요증가, 에너지 수송관련 파이프 수요 증가 등 각종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미얀마 정부의 대규모 신수도 건설계획 있음.

4) 선박과 수상구조물 (HS 89)

- 인도의 대외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물동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선박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음.

5) LCD TV 등 고급 가전 (HS 8528)

- 호텔, 고급 아파트 건설 확대에 따른 가전제품 고급화 추세로, 브랜드 시장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에 의한 신규수요 발생

6) 컴퓨터 등 IT제품 (HS 8517, 8525)

- 서남아 중심의 전자정부 구축확대에 따른 IT제품 수요 증가

7) 섬유기계류 (HS 8446, 8447)

- 서남아 각 국별 섬유정책 추진으로 섬유(의류) 기업 투자확대에 따른 기계류 수요 증가

유럽지역

1. 2008년 유럽지역 경제 및 시장여건

가. 낙관적 요인

□ 유럽 Big 3, 내년에도 2%대의 건전한 성장세 지속

- 유럽 경제의 축인 영·불·독 3개국의 경제는 '07년에도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에도 외부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속 성장 전망
 -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유가 상승 등의 외부요인 작용
- 영국은 Northern Rock 등 모기지 대출기관 부실에도 불구하고, 파운드화의 지속적인 강세 및 조선산업 등 기간산업 호조 요인으로 연착륙
-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 추가 근무수당 감세혜택 등 신자유주의 성향의 정책 고수에 따른 친기업적 분위기 형성
 - 佛 정부 발표 '08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 1.5~2.0%
- 독일은 금년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힘입어 2.6%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나, 내년에는 2.2% 선으로 성장률 하락

□ EU 신가입국 중동구 국가의 경기 호황

- 비세그라드 4개국(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은 EU 평균경제성장률('07년: 2.6%)을 매년 상회하는 EU 경제의 新원동력
- 폴란드의 경우, 올해 6.5%의 성장률로 '9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5.0-5.5%의 성장 예상
- 체코는 EU와의 교역확대로 '08년 약 15.6%의 수출 증가를 기록할 전망이며, 금년 상반기 중 FDI 유치도 약 32억불에 달함.
- 헝가리 역시 EU 경제 호조 및 EU 자금 유입에 따라 수출 증가세유지 또는 지속 전망
 - EU 역내 수출 증가에 따른 획기적 무역적자 개선 현상
 - 헝가리 무역적자 : '06년 : 26억불 → '07년 : 10억불

□ 대형 스포츠 이벤트 개최 및 유치에 따른 부가효과 발생

- 유로 2008(스위스·오스트리아), 유로 2012(폴란드) 개최, 런던 올림픽(2012)에 따라 인프라 프로젝트 수행 필요 등 파급효과 지대
- 스위스·오스트리아의 유로 2008 개최의 경제적 효과는 12억 달러, 고용창출 6,000명으로 예상되고 있음
- 폴란드와 영국도 정부 주도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 대대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산업 호황 기대

나. 비관적 요인

□ 세계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EU경제 동반 하락세

- '08년 세계 경제는 미국발 금융불안 및 유가 고공행진으로 하락세 기록 전망
- 아시아 및 산유국 등의 성장세 지속 등의 요인이 둔화세를 상쇄할 전망이나, EU의 역외 수출은 감소

□ 유로화 강세에 따른 유로권 국가의 수출 경쟁력 약화

- 미국 재정적자 확대 및 EU 지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유로화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연도별 USD/EURO 환율 (전망) : 1.25('05 → 1.26('06) → 1.34('07) → 1.36('08)
- 유로화 강세는 유로지역 상품 수출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지역 경제성장에 악영향

□ EU 국별 정부, 재정적자 개선을 위한 긴축재정 추진

- 개별 회원국은 EU와의 협의에 따라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바, 이로 인한 긴축 재정으로 내수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음.
- 이탈리아의 경우,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재정적자 문제가 계속 악화되어 공공부문 지출에 걸림돌
※ 伊 공공소비 증가율 : 1.5%('05) → -0.3%('06) → 0.3%('07) → 0.5%('08)

2. 2008년 對유럽지역 우리나라 수출전망

가. 총괄표

구 분	단 위	2007년	2008년
금 액	백만불	60,282	64,312
증감률	%	14.1	6.7

나. 전망근거

1) 밝은 면

☐ 유로화 강세에 따른 수출 가격경쟁력 제고

- 국내기업은 원화 강세 및 달러화 약세로 대체시장 발굴에 주력하고 있으며, 유럽시장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음
- 원화 절상에도 불구하고, 원화 대비 유로화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한국제품의 가격 경쟁력 제고

☐ 한국기업의 대유럽 투자인출 확대

- LG-필립스 LCD, LG전자 등 동유럽에 소재한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현지 공장 가동이 본격화 됨에 따라 원부자재 및 기계설비 수출 확대
- EU 가입 후보국 터키의 경우, 35개사의 한국 기업이 현지진출 해 있을 뿐 아니라 진출 기업 수도 지속적인 증가세
 - 최근 중소기업들까지 직접투자에 나서 주재국 시장 공략이 본격화
 - 기투자기업도 판매법인, 공장설립 등을 통해 직접적인 공세

☐ 非유로권 국가의 자국화폐 환율절상 심화

- 영국의 경우, 상반기 지속적인 달러화 약세 및 파운드 강세로 지난 11월 17일 기준 환율이 26년간 최고치인 1파운드=2.10달러에 달한 바 있으며, '08년에도 달러화 대비 강세 전망
- 2006년 하반기 유로화 대비 강세를 나타냈던 파운드화는 2007년 상반기 내내 약세를 지속

-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유로강세에 힘입어 계속될 것으로 예상
- 2007년 터키 리라화 환율도 연초부터 달러대비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터키제품과 경쟁하는 우리 수출품의 경우, 가격경쟁력에서 유리

2) 어두운 면

□ 한국 주력 수출품목, 경쟁국과의 경쟁 심화

- 휴대폰, 가전, 자동차, 선박 등 수출 주력품목이 유럽 주요시장 글로벌 브랜드 및 중국 등 개발도상국 제품들과 경쟁 격화
- 대영국 총수출의 약 16%를 차지하는 자동차는 최근 영국 자동차 시장 불황 및 친환경 차량 우대정책에 따라 수출 감소세
 - 일본, 독일 등 경쟁국에 대한 시장 경쟁력 약화로 수출부진 우려
- 선박의 경우, 2004년 스웨덴 Wallenius사가 대우조선에 주문한 차량운반선 등 대형선박의 인도가 2006년에 이미 완료
 -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품으로, 내년도 경기 사이클이 반전될 경우에는 수출 급락 위험 존재

□ 지속적인 원화강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 교역수지 흑자에 따른 지속적인 원화강세는 일본·중국·대만 등 경쟁국 대비 한국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환율이익 효과에 따른 가격 경쟁력 손실의 요인으로 작용
- 2008년에는 원화 강세정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
 - 최근 3년간 통화절상률 : 원화(22.7%), 엔화(△6.5%), 위안화(5.3%), 유로화(10.4%)

□ 민간소비 및 소매경기 냉각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가능성 상존

- 프랑스의 경우, 정부의 공공적자 감소 및 공공부채 감소 정책에 따라 공공소비 증가율이 소폭 둔화되고, 민간소비 증가율도 당초 보다 0.3 포인트 낮아진 수준(2.2%)으로 둔화전망 (OECD)
 - '07 수입 증가율도 당초 6.7%에서 3.5%로 낮아질 것

- 영국의 소매경기는 지난해 고유가, 이자율 상승, 소비심리 냉각 등 경기부진을 보여 왔으나, '06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상반기 기준 동기 대비 약 4.7%의 성장세를 기록
- 최근의 유가인상,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및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의 축소 기미를 제공, 소매경기 냉각 우려

□ '07년 중 완화되었던 EU의 대한 수입규제, 다시 강화될 수도 있어

- 철강의 경우, 중국이 주된 대상이기는 하지만 한국산 철강 제품도 함께 반덤핑 제소되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Mattel社의 완구 리콜을 계기로 유럽 전역에 중국산 제품의 안전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다. 종합의견

- 독일, 이태리 등 유로권 국가의 경제 호황은 '06년을 정점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어, 내년도 對EU 수출의 확대 추세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유로 2008(스위스·오스트리아), 유로 2012(폴란드), 런던 올림픽(2012) 등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개최에 따른 건설 프로젝트 및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에 따른 부자재 수입수요 증가는 수출 증가 요인
- 원화강세, 경쟁국과의 경쟁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은 우리나라의 수출환경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음
- 한-EU FTA 타결에 대한 기대감은 중기적으로는 우리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2008년의 경우 실제 수출 확대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
- 그러나 EU 경제의 연착륙, 우리 수출품목의 다변화 경향, 수출주력 품목의 안정된 수출 추세 등의 요인을 고려한다면 내년 유럽 수출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품목별 수출전망

가. 주요 품목 수출전망

품목명 (MTI코드)	'08 연간 전망 (‘07년 대비)	전망근거 요약
일반기계 (71, 72, 73, 79)	소폭증가	- 유럽내 최대 수출국인 폴란드 기계 수출 금년 기록적 증가 - 이에 따른 숨고르기로 내년도에는 소폭 증가 예상
자동차 (741)	현상유지	- 독일 : 소형차 및 SUV를 중심으로 증가세, 유가, 소득세 인상에 따라 정체 예상 - 스페인 : 현지 판매 시장의 마이너스 성장에 영향, 감소 예상
철강제품 (61)	소폭증가	- 伊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증대 - EU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움직임에 따른 수입 수요 위축 가능성
석유화학제품 (21)	소폭증가	- 주요 수출국인 터키 외투기업의 투자확대로 인한 수요증대 예상
섬유류 (4)	현상유지	- EU의 대중국 섬유쿼터 폐지에 따른 한국산 섬유 경쟁력 약화 - 프랑스·독일 등을 중심으로 인조섬유·편직물 및 폴리에스터 수출 증가 예상
평판디스플레이 (8361)	소폭감소	- 독일, 폴란드 등 주요 수출시장 시장포화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 삼성, 슬로바키아 생산라인 1차 완공으로 수출 증대효과 기대
무선통신기기 (812)	현상유지	- 독일·이탈리아, 전반적인 시장 성숙 - 프리미엄 제품 위주의 적극적 마케팅
반도체 (831)	소폭증가	- 독일 등 첨단 기술제품 조립 수요 꾸준 - D-RAM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영국 등 주요 시장 건설
가전 (82)	소폭증가	- 폴란드·슬로바키아 등 한국기업 생산 시설 소재 중동구 중심 수요 증가
자동차부품 (742)	대폭증가	- 슬로바키아 KIA 공장 가동 본격에 따른 부품 수출 증가 (9월 기준 증가율 1,514.3%)
컴퓨터 (813)	현상유지	- 시장 포화에 따른 PC 수출 지체현상 계속
석유제품 (133)	대폭증가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선박류 (7461)	소폭증가	- 對독일, 그리스 수출 전년도 대폭증가 - 영국 상반기 인도물량 다수

자료원 : 바이어(179)개사, 주재상사(120)개사, 조사기관(29)사, 기타(11) 등

나. 주요 품목별 전망근거

1) 일반기계 : 소폭증가

- 폴란드 현지 경기호황과 기업 투자 대폭 증가로 금년도 기계장비 수요 크게 증가
 - '07.9월 누계 對폴란드 기계수출 : 3억4천2백만불, 1,534.3% 증가
- 금년도에는 LG-필립스 LCD, LG전자 및 협력업체 생산공장 설립에 따라 기계장비 수출이 기록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내년에는 이에 따른 숨고르기 현상으로 증가세 둔화 전망

2) 자동차 : 현상유지

- 유럽 자동차 최대 수출국인 독일시장에서 월드컵 이후 현대, 기아차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금년도 대규모 호황세
- 내년 독일 신차 판매량은 '07년 310만대보다 소폭 증가한 320만대에 그칠 전망이고, 유가상승·소득세율 인상 등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인해 수출 성장세 둔화지체
- 스페인의 경우, 지난 해 까지 활황을 기록하던 자동차 시장이 이자율 및 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차는 할부 구매제·구형차 보상 판매 등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나, 전체 시장의 축소로 인해 내년도 고전 예상

3) 철강 : 소폭증가

- 주요 수출 대상국인 벨기에 및 이탈리아의 철강 수출은 금년도 두 자리 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
 - '07.9월 현재 수출 증가율 : 벨기에(119.8%), 이탈리아(93.1%)
- 이 같은 수출 급증 현상은 양국 내 설비투자 증가로 인한 철강제 수요 및 End User와의 장기 공급계약 증가가 원인
- EU 전체의 철강 수요는 주요 수요산업인 건설, 철구조물, 자동차 등의 생산활동 증가로 내년도도 증가 예상
- 그러나, EU의 중국 및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입수요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유럽 철강협회, 총 4건의 반덤핑제조를 준비 중
 - 한국산 스텐레스 냉연 코일 1건 기제소

4) 석유화학 : 소폭증가

- 터키내 원유 부족 및 외국 기업들의 투자 본격화에 따라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수입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이태리의 경우, 수요확대 및 제품원료인 납사가격 인상으로 석유화학 제품 수출단가 상승
 - 납사 가격(\$/톤) : 521('07.1월) → 712('07.9월) → 763(10.22일)
 - 석유화학제품 수출단가(\$/톤) : 1,217('06.7) → 1,227('06.10) → 1,274('07.10)

5) 섬유 : 현상유지

- 섬유류 수출은 올해 독일, 터키, 프랑스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호조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술섬유인 인조섬유, 고급 편직물을 중심으로 내년에도 호황 기록 전망
- 특히 중국 및 동남아시아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 상실로 지속 약세를 보여 왔던 한국산 섬유제품수출은 업체들의 고급화 및 고품질 전략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EU의 중국산 섬유수입 쿼터가 2007년 말 폐지됨에 따라 중국산 수입이 급증할 전망
- 중국산 섬유의 주요 품목이 저가에서 증가로 바뀌는 시점인 2009년에 경쟁이 심화될 전망

6) 평판 디스플레이 : 소폭 감소

- 이미 포화된 독일 평판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경쟁국과의 경쟁 심화, 가격 하락 등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산 제품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임.
- 금년 3월 기공한 삼성전자의 LCD 생산라인이 내년 초 1차 완공됨에 따라 관련자재 수출은 계속될 전망

7) 무선통신기기 : 현상 유지

- 독일 휴대폰 시장은 포화상태로 노키아, 모토로라 등과 고급제품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하여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임.
- 한국 무선통신기기의 대독일 수출은 2005년도에는 43%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으나, 2006년도에는 환율시장 악화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금년에도 수출 둔화세 기록
- 국제 표준으로 인정된 Wibro폰이 출시 될 경우, 대체 수요창출 효과로 영국 및 프랑스 등 주요 수출국으로의 물량 증가 예상

- 헝가리, 네덜란드, 스페인 시장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여, EU 전체 차원에서는 2006년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

8) 반도체 : 소폭증가

- 독일 반도체 시장 규모는 '07년 약 2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됨.(전년비 5.3% 증가)
- 독일 전체 반도체 시장 규모가 축소 됨에 따라, '07년 상반기 호조를 기록하던 수출 증가세가 주춤
 - 독일 전자산업협회(ZVEI), 독일 반도체 시장 규모 4% 감소 발표

9) 가전 : 소폭증가

- 최대 수출국인 폴란드·슬로바키아의 현지진출 TV 생산시설 가동 본격화에 따라 TV 부품 수출 지속
 - 삼성, LG 등 현지 법인, 영상 및 백색가전을 중심으로 판매 호조 예상
- 현지 경기호조, 구매력 상승 및 주택 건설 붐에 따라 가전 수요 확대

10) 자동차부품 : 대폭증가

- 슬로바키아 질리나市에 설립된 KIA 공장 본격 가동에 따라 자동차 부품 수출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9월 기준 수출규모는 6억 1천만 달러, 증가율 1514.3%를 기록
- 독일 및 프랑스 자동차 업체들의 글로벌 구매 정책에 따른 수입 증가 및 현지 국산차 판매 증가에 따른 A/S 수요로 인해 내년에도 호조 전망

11) 컴퓨터 : 현상 유지

- 독일 연방 정보통신협회(BITKOM)에 따르면, 2006년도 독일 컴퓨터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우리 수출은 올해도 증가세 미미('07.9월 기준 증가율: 11.9%)
- 삼성, LG 등 한국의 대기업은 독일시장에 노트북만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노트북 가격 하락 현상으로 금액면에서는 현상 유지 전망
- 폴란드 PC 및 주변기기 시장의 호황: 작년 PC 판매량 30% 이상 증가
 - 시장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컴퓨터, 부품 및 주변기기 수입 지속 증가

12) 석유제품 : 대폭증가

- 영국은 환경 친화정책으로 인해 정유시설이 없는 관계로 윤활유 수요를 전량 수입에 의존
- 한국제품의 경쟁력 확보로 네덜란드 Shell 등 대형 정유기업 및 중소 윤활유기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수출 증가

13) 선박 : 소폭증가

- 독일 1위의 선박수입국인 한국의 對독일 선박수출은 '06년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독일 경기 회복에 힘입어 탄력을 얻을 것으로 보임.
- 그리스의 경우, 최근 물동량 증가 등으로 해운산업이 초호황을 구가함에 따라 '06년 대 그리스 선박 수출이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
- '06년 수출규모 : 23억달러(전년 대비 97.8% 증가)
- 현재 한국 조선기업은 향후 9년간 선박 건조물량을 확보한 상태이며, '06년 대통령 국빈 방문 등으로 수주물량 급증

4. 2008년 수출유망품목

1) 금속공작기계 (MTI: 723)

- 대EU 수출실적은 2005년도 71.4%, 2006년도 39.8% 증가에 이어 2007년도 9월 역시 전년대비 52.8% 증가
- 독일, 일본 등의 제품에 비해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이 높고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현지 수요 증가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
- 매년 수출액 기준 상위 20위내에 자리하는 품목으로 對EU 수출에서의 중요도가 높은 품목

2) 산업용 장갑 (HS 6116.10)

- 유럽은 기계 및 화학산업이 발달한 국가로 산업용 장갑은 절대 금액은 작지만 우리의 대유럽 주종 수출상품중 하나
- 특히 산업용 장갑중 Cut 레벨이 중요시되는 다이니마, 케블라 제품과 기타 제품 생산라인에 사용되는 copper, carbon 제품의 경우 한국산 제품 경쟁력 보유

- 반대로 별다른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면, 나일론 장갑의 경우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 산업용 장갑을 포함한 개인보호장비 시장의 경우 EU 및 회원국 법규에 의하여 착용이 의무화되어 시장 자체가 안정적임.
- 산업용 장갑 분야에서는 특히 역외수입 비중이 많아 EU 전체적으로도 총 수입의 68% 정도를 역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3) 디지털 액자 (HS: 853120)

- 유럽내 디지털 카메라의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컴퓨터를 켜지 않고도 액자형식으로 슬라이드 쇼를 볼 수 있는 액자형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
- 디스플레이를 전문으로 유통하고 있는 독일 업체 UMAX Systems의 담당자는 내년도 8인치형 및 11인치형 디지털 액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것으로 보고, 경쟁력 있는 한국산의 수출전망을 낙관

일본지역

1. 2008년 일본지역 경제 및 시장여건

가. 낙관적 요인

☐ 완만한 경제성장세가 지속

- 2007년 3·4분기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일본 경제는 실질기준 전년비 0.6%(年率 2.6%) 성장. 내외수 모두 견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어 2007년 실질경제성장률은 1.8%로 전망(일본은행)
- 2008년도 일본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2.1%, 주요 경제연구소의 연구원들도 2%내외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어, 2008년도에도 일본경제가 완만한 확대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소득의 증가 및 개인소비의 증가

- 최근 몇 년간 노동생산성 상승으로 소득증가, 개인소비 회복이라는 경기의 선순환이 예상되며 수입수요도 증가될 것임.
 - 루이뷔통, 알마니등 고급 브랜드 SHOP의 일본진출도 증가, 고급 맨션의 당일 분양완료 등 부유층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이 한층 강화될 것임.
- 개인소비의 확대는 중소기업의 생산력 증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져, 2007년 하반기에 약간 증가된 실업율(4.0%)이 2008년에는 다시 3%대로 하락하여 고용환경도 개선될 것임.

☐ 비제조업 설비투자증가, 기업생산 및 수출의 증대

- 주택착공 및 자본재 설비투자의 둔화를 비제조업이 보완하는 형태로 전체 투자는 증가될 것임
 - 자본재 출하는 9월중 전월대비 7.1% 줄어 6개월만에 감소 전환하였고, 기계수주액은 8월중 전월대비 7.7% 감소하였으나 제 3차 산업활동지수는 8월중 전월대비 1.3% 상승
- 2007년도 IT관련 제품의 재고조정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IT제품의 국내수요 및 중국, 아시아지역에서의 수요가 증대될 것이므로 생산, 수출입 모두 성장이 예상

나. 비관적 요인

□ 미국 경기의 후퇴우려에 따른 수출환경의 악화

- 일본의 중국 및 아시아지역 수출증가로 대미수출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으나, 미국 경기의 후퇴는 그 영향이 세계적으로 파급되어 일본의 수출환경이 악화될 가능성
- 미국의 서브프라임 문제에서 발생하는 주택 투자 감소등 미국경제의 후퇴와 개인소비의 둔화는 일본경제에 악영향 우려

□ 환율의 급격한 변동 및 유가상승

- 지난 수 년 동안 엔약세로 기업들의 수출환경이 매우 좋았으나, 2008년에는 엔고로 전환될 여지가 있어 수출주도로 생산을 확대한 일본제조업에 타격을 미칠 수 있음.
- 달러당 1엔이 올라가면 일본 주요기업들의 경상이익이 0.5%하락하는 만큼 달러약세, 엔강세의 경우 일본기업에 타격을 미칠 것
- 원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물가상승 및 실질소득감소 등으로 개인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임. 또 중소기업의 수익 압박의 요인 및, 설비 투자를 약화시켜 경기후퇴를 가져올 가능성

□ 공공투자 둔화 및 소비세 인상 우려

- 공공개혁의 지속으로 공공사업 예산이 계속 삭감되어 지방경제의 불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확대등 양극화 진전
- 소비세 인상이 실시되면, 소비침체 및 경기후퇴의 가능성도 등장하고 있으며, 2008년도 하반기이후 경기가 매우 불확실 하게 움직일 것임.

2. 2008년 對일본지역 우리나라 수출전망

가. 총괄표

구 분	단 위	2007년	2008년
금 액	백만불	25,600	27,500
증감률	%	-3.5%	7.4%

나. 전망근거

1) 밝은 면

☐ 엔저에서 엔고로 전환가능성

- 엔화결재 비중이 높은 일본시장에서 수년동안 지속된 엔저로 인해 2007년 우리의 대일 수출이 감소를 보임.
- 달러약세에 따라 엔화도 강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11월13일에는 환율이 1년 5개월만에 달러당 110엔을 하회하는 109.59엔을 기록
 - 100엔당 781.83원(06년 12월말)에서 791.11원(07년 10월말), 825.60원(07.11.14)으로 미약하지만 원화에 대해서도 강세로 전환

☐ IT제품 재고조정의 진전과 수요증가

- 한국, 대만 등에서의 IT관련 제품의 재고조정 진전되고 있고, 반도체가격의 하락도 멈추고 있으며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관련 제품의 수요도 증가할 것임.
- IT제품의 일본내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일본제품의 해외수출이 증가하면 관련 부품의 수입이 증가하므로 IT관련 부품의 대일수출이 확대될 여지

2) 어두운 면

☐ 미경제 침체가능성에 따른 일본경제의 후퇴 우려

- 일본경제는 그동안 엔저로 인한 수출중심의 경기성장이 지속되었으나 미국경제의 침체, 엔고진행으로 수출이 감소되면, 일본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쳐, 수입수요가 감소될 우려

☐ 유가상승 및 소비세인상 가능성으로 수요감소

- 현재 일본 정치권에서 소비세 인상이 논의되고 있으며, 소비세 인상이 실현될 경우 개인소비 및 수입수요 감소 우려
- 세계적인 유가상승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본경제에 타격을 주어 경제성장을 하락시키고, 소비도 감소시킬 가능성

☐ 자본재 설비투자의 둔화에 따른 부품소재 수입 감소

- 2006, 2007년 기업의 설비투자가 상당히 진행된 관계로 기업의 국내설비투자가 둔화되어 설비투자용 수입수요 감소 우려

- 실제로 수입유발계수가 높은 자본재출하 및 기계수주액이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다. 종합의견

- 2008년 일본경기는 수출, 기업수익, 개인소비증가를 배경으로 완만하지만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생산활동 및 소비지출의 증가에 따라 해외에서의 수입도 확대될 전망
- 엔저로 인해 2007년도 대일수출이 감소되었으나, 2007년 하반기 이후에 환율이 엔고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고 엔강세가 유지된다면 2008년 대일수출은 반도체, 철강제품, 무선통신기기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임.
- 서브프라임 문제등으로 미국경기의 침체가능성, 국제적인 유가인상이 일본경기에 큰 타격을 줄 경우, 우리의 대일수출도 예상만큼 증가하지 않을 우려도 존재

3. 품목별 수출전망

가. 주요 품목 수출전망

품목명 (MTI코드)	'08 연간전망 ('07 대비)	전망근거 요약
일반기계 (71,72,73,79)	소폭증가	- 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출증가로 유발수요 증대 -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요증대 및 교체수요 발생
자동차 (741)	현상유지	- 자동차 판매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한국차의 인지도가 소비자 사이에서 높지 않음.
철강제품 (61)	소폭증가	- 수입수요는 높으나, 국제적인 공급부족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할 물량이 한정적
석유화학제품 (21)	소폭감소	- 달러결재가 많아, 달러약세가 부정적 영향 - 일본메이커의 증산움직임으로 판매경쟁 격화
섬유류 (4)	대폭감소	-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경쟁력 열위 - 고기능, 고부가가치 제품수요의 대응력이 미약
평판디스플레이 (8361)	현상유지	- 시장은 커지고 있으나 일본기업의 증산으로 경쟁격화 - 소형제품의 경우 경쟁력 열위
무선통신기기 (821)	소폭증가	- 한국 휴대폰이 소비자에게 반응을 얻고 있음 - LG전자 초콜렛폰 등의 판매신장이 예상

반도체 (831)	소폭증가	- 모듈화 반도체, 플래시메모리의 수요증대 - D-RAM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
가전 (82)	대폭감소	- 소비자용 가전제품 판매에서 삼성이 철수 - 한국산 인지도 부족 및 일본 가전메이커와의 경쟁격화
자동차부품 (742)	소폭증가	- 가격경쟁력이 높아 A/S시장을 중심으로 확대 - 자동차 메이커의 조립시장에는 진입이 어려워 한계
컴퓨터 (813)	소폭감소	- 삼성의 판매중단 및 한국산제품의 입지가 축소 - PC 액세서리를 중심으로 수출
석유제품 (133)	소폭감소	- 국제원유가격 상승 등으로 석유제품의 무역량이 감소
선박류 (7461)	소폭증가	- 한일모두 조선강국으로 상호 교역량이 작음 - 선박부분품, 조선기자재를 중심으로 수출증가

자료원 : 바이어(25)개사, 주재상사(10)개사, 조사기관(4)사, 기타(2) 등

나. 주요 품목별 전망근거

1) 일반기계 : 소폭증가

- 기계류의 대일수출은 기계제작에 필요한 기계부품을 중심으로 완만한 확대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일본의 기계류 수출은 아시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며, 수입도 중국 등 아시아국가에서 증가할 것임.
- 2008년의 일본의 일반기계 산업은 해외의 수요로 인해 생산증가 기조가 유지될 것임. 또한 기업의 수익 개선을 배경으로 기업의 설비 투자를 통해 견조한 추세가 예상
- 일반기계는 보일러·터빈,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교체수요가 많을 것이며 토목 건설기계는 해외 수요를 배경으로 생산이 증가될 것임. 화학 기계는 공공기관의 환경장치의 수주는 어려운 상황이나 민수는 견조한 추세가 유지될 것임.
- 인쇄·제본기계는 일본수요가 고부가가치 설비로 이동중이므로 회복이 기대되며 외수도 왕성한 만큼 생산·수출 모두 증가세를 보일 것이며 펌프·송풍기·압축기의 내수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나, 수출호조로 생산은 약간 증가될 전망

2) 자동차 : 현상유지

- 일본 내 생산메이커가 많아 자동차 판매경쟁이 매우 치열함. 현대 자동차는 유럽 및 미국에서 높은 판매실적을 보여 해외에서의 지명도는 높으나 일본시장에서는 소비자 인식이 매우 낮은 상황

- 현대 japan은 일본산차보다 품질 보증기간을 늘려 고객층을 끌어들이는 전략 구사 중. 일본자동차의 중요 부품 보증기간은 5년간 10만 km이지만, 현대는 10년간 10만 km를 무료로 보장
- 오키나와에서는 렌트카업체, 도쿄에서는 개인 택시용으로 판매를 강화하고 있음. 그랜저 3300cc, 소나타 2400cc, Tb1400cc, LPI2700cc를 일본 시장에 투입했으며 2008년은 LPI로 승부를 건다는 전략. LPI는 LP가스를 사용하므로 가솔린 가격 상승으로 고심하는 소비자에게 반응이 좋은 편
- 최근 일본자동차 시장은 소형차를 중심으로 판매가 활발하며, 수입차 시장은 거의 고착화 되어 있음. 향후 시내 단거리 주행용으로 한명이 탈 수 있는 초소형차가 인기를 끌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3) 철강 : 소폭증가

- 일본의 철강수요가 왕성하므로 대폭적인 수출증가가 기대되지만 한국 국내에서도 수요가 왕성하여, 대일수출물량이 적은 만큼 철강류의 대일수출은 소폭증가에 머물 전망
- 일본시장의 철강가격은 국제시세보다 싸고, 후판, 형강 등 일본 거래처의 수요가 높으나 한국국내에서도 수요가 높아 대일수출의 여력이 적음.
- 2008년 하반기부터는 건축용으로 사용하는 H강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열연강판 및 가전용 냉연강판, 아연도금강판 등의 수요도 증가할 전망으로 중국산의 경우 중국국내 수요를 맞추는 데 급급한 만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것임

4) 석유화학제품 : 소폭감소

- 세계적으로 원유가격이 상승하여, 석유화학품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지만 판매확대가 여의치 않으며, 석유화학제품은 달러결제에 많아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경우 한국제품의 수출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
- 그동안 원화강세로 인한 가격인상분을 한국수출기업이 내부흡수를 많이 하였으나 채산성 악화로 대일수출여력이 점차 약화됨.
- 한국 미츠비시상사의 경우 종래 일본으로 수출했던 한국의 석유화학제품을 일본에서 대만으로 수출선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메이커도 증산체제를 갖추고 있어 2008년의 석유제품의 판매경쟁이 격화될 전망

5) 섬유류 : 대폭감소

- 닛센 등 섬유류 빅바이어가 취급하는 섬유류의 90%이상은 중국제로 한국 섬유류의 경

쟁력은 해마다 약화되고 있음. 한국기업이 기획해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가격경쟁력 있는 제품의 수요는 있으나 한국산 제품은 가격경쟁력 열위로 수출이 매년 감소

- 섬유중에서 아라미드 섬유(aramid fiber)나 탄소 섬유등 고기능 섬유의 수요는 일본 시장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기능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이 필요

6) LCD : 현상유지

- 일본의 LCD 시장규모는 07년은 8.5조엔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7~10%의 순조로운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나 일본기업들도 왕성한 설비투자로 생산능력이 증가된 만큼 한국제품의 수출은 전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LCD 시장은 왕성한 설비 투자에 따른 생산증대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샤프 카메야마 제2공장(8세대)이나 삼성은 7세대 라인의 증강과 8세대의 신규투자, 또 LPL가 7.5세대 라인을 증설하는 등 40인치 이상 생산 효율이 높은 라인을 중심으로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텔레비전용 및 PC모니터용이 시장을 이끌고 있음.
- 소형 LCD는 휴대 전화 전용의 VGA 패널이나 SOG에 의한 각종 센서/주변 회로의 어레이 내장, 시야각 제어 등의 고기술개발 진행되고 있고,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코스트 절감노력이 진행중으로 한국제품의 경쟁력이 일본산에 비해 열위에 있음.

7) 무선통신기기 : 소폭증가

- 일본의 핸드폰 시장은 3세대 기종으로 이동중에 있으며 한국 핸드폰의 고기능성, 디자인면에서 일본통신사업자 및 소비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
- 일본의 무선통신기기(핸드폰)시장은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NTT Docomo, KDDI, 소프트뱅크가 핸드폰 제조메이커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각각 한국의 LG, 팬택, 삼성의 핸드폰을 수입하여 판매
- NTT Docomo, KDDI, 소프트뱅크는 고객 요구의 다양화에의 대응, 시기적절한 상품 투입, 코스트 경쟁력 확보등 한국휴대폰이 소비자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수입을 지속할 예정
- 2007년 10월에 NTT Docomo가 판매를 개시한 LG전자의 초코렛폰도 현지 소비자 반응이 좋아 2008년 판매신장이 기대됨.

8) 반도체 : 소폭증가

- 노트북 PC와 데스크탑 PC용 반도체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모듈화된 반도체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디지털 카메라용 플래시 메모리 수출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

- 하이닉스의 DRAM반도체(2011년1/26까지)에는 상계관세가 부과되어 DRAM의 대폭적인 수출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움.

9) 가전 : 대폭감소

- 삼성 JAPAN은 대형양판점을 통한 가전제품 판매를 2006년 여름에 중단하였고, 2007년 10월에는 인터넷 판매망인 '삼성 다이렉트'를 통한 판매를 중단함. 삼성 다이렉트에서는 14~46인치 액정 TV를 포함해 MP3, DVD 플레이어 등 음향 및 AV기기 주로 판매해 왔음.
 - 삼성은 80년대 세탁기 등 백색 가전으로 일본에 진출하였으나 2000년에는 백색 가전에 서 철수하고 AV기기에 힘을 쏟음. "가격이 조금 높아도 자국 제품을 산다"라고 하는 일본 소비자의 심리와 '아시아산=싸구려'의 이미지를 불식할 수 없어 시장확대에 실패
 - 일본 시장은 일본국내의 경쟁기업이 많고, 일본의 제품 규격과 성능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등 시장진입비용이 많이 소요됨. 가전제품 판매액은 2006년 70억엔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아 삼성JAPAN의 매출액에는 별 영향은 없으며 기업용 제품은 계속 판매할 예정
- LG는 청소기, 전자렌지등 소형가전제품 및 독신자용 소형세탁기, 트럼식 스팀 대형세탁 기를 판매하고 있으나, 일본의 복잡한 시장유통구조와 브랜드 이미지 부족으로 판매확 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10) 자동차부품 : 소폭증가

- 자동차부품의 A/S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한국산제품의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 고 있어, 오토박스 등 자동차부품 종합판매상의 선호가 지속되고 있음.
 - 배터리는 한국산 가격이 저렴한 것은 6천엔 정도로 일본 제품과 비교해 40%정도 싸며 타이어는 4개에 2만2천8백엔(185-65R-14 inch)으로 요코하마 고무의 47,880엔보다 저렴하 여 가격 경쟁력이 매우 높음.
 - 고속도로 주행 시 잡음이 일본의 메이커와 비교해 많이 발생하여 시장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2008년의 저가격 지향의 고객을 중심으로 대일 수출은 소폭 증가할 전망

11) 컴퓨터 : 소폭감소

- 2008년에는 삼성컴퓨터(노트 및 데스크탑)의 소비자용 판매는 중지하고, 일부 노트북 PC를 법인용으로 판매할 예정.
- 일본의 PC 시장에서는, 고기능 제품은 일본산, 보급품은 수입품이라는 공식이 있고 보 급품의 경우도 DELL이나 중국산이 장악하고 있어, 한국제품의 입지가 계속 약화되고 있음.

- 그동안 수출물량도 PC엑서사리가 중심으로 PC본체의 물량은 그다지 많지 않음.

12) 석유제품 : 소폭감소

- 코스모석유, 쇼와셀석유나 재팬 에너지등 일본의 대형석유 유통업체들이 한국제 등유를 주로 수입. 한국제 등유는 유행분 작아 일본 제품과 품질이 유사한 관계로 그대로 판매가 가능하여 일본석유 유통업체들이 선호
- 국제 원유가격 및 겨울날씨 등의 외적요건에 의해 수출입의 물량의 규모가 결정되나 원유가격 인상으로 수출물량은 감소예상

13) 선박류 : 소폭증가

- 한일 양국 모두 조선강대국으로 선박 완성품의 상호교역은 매우 적음. 일본은 선박에 대한 세금이 매우 비싸서 일본해운 회사들이 리베리아나 파나마국적으로 한국의 선박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음.
- 부산 부근에서 선체를 분할하여 선박의 부분품으로 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형·중형용의 디젤 내연기관이나 보조 교환기, 보조 조타 장치나 펌프등 선박기자재를 중심으로 대일수출이 증가할 것임.

4. 2008년 수출유망품목

1) 철강판 (MTI : 613)

- 일본의 철강재 수요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급부족에 따른 철강재 단가도 인상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수출증가가 가능할 것임.
- 후판, 형강의 수요가 왕성하며 조선 및 자동차용의 철강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특수강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을 통해 일본시장에서 품질로 승부를 할 필요

2) 무선통신기기 (MTI : 812)

- 일본의 휴대폰 시장은 일본 독특의 유통구조 및 일본메이커의 시장 장악으로 노키아나 모토로라 등 세계적인 휴대폰 메이커도 진입이 어려운 시장

- 삼성 및 LG 등 한국 휴대폰은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은 실력으로 NTT-DOCOMO, KDDI, 소프트뱅크 등 일본의 통신업체를 공략하여 일본시장에 진입하였고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수출증가가 예상
- 기능, 디자인 및 액정크기 등 일본소비자 취향 및 일본시장의 특성에 맞게 일본통신업체와 협의를 통해 일본수출용 제품을 개발한 것이 주효
- 2007년 10월에 발매된 LG 초콜렛폰의 초기 소비자 반응이 좋아 2008년 수출신장이 예상됨.

3) 기계요소 (MTI : 751)

- 일본기업의 생산활동 증가 및 기계류의 해외수출 증가로 일본기계메이커의 수익성이 대폭 제고되었고, 2008년에도 일본산 기계의 해외수출 및 해외기계류의 수입수요가 증가될 전망
-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의 경제성장으로 일본제 기계수요가 2008년에도 지속될 것이며, 일본기업 자체의 기계류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보임.
- 기계수출보다는 기계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부분품 및 부품, 소재를 중심으로 한국제품이 시장을 확대할 수 있으며, 단품보다는 모듈화된 제품으로 일본시장을 공략할 필요

4) 축전지 (MTI : 835)

- 자동차 액세서리 부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자동차부품 소매점을 중심으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한국산 제품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한국제품이 일본제품에 비해 30~40% 가격경쟁력이 높아,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을 찾은 소비자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음.

5) 원동기 및 펌프 (MTI : 711)

- 2008년에도 일본의 기계관련 산업 및 조선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제품의 수입수요도 증가될 것임.
- 원동기 및 펌프등 한국제품은 중국산등에 비해 비싸기는 하지만, 품질의 안정성 및 수명 등이 길어 한국제품의 경쟁력이 있음.
- 원화강세로 최근에는 일본제품의 가격에 육박하여 수출증가에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적정수준의 환율과 원가절감의 노력이 필요

CIS지역

1. 수출여건

가. 낙관적 요인

[총 괄]

- ☐ CIS 국가의 지속적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입수요 증가
- ☐ 원유, 가스, 석탄 등 지하자원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확대
- ☐ 외국기업들의 투자증가 및 건설경기 활성화

[러시아]

- ☐ 러시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 러시아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수출확대와 설비투자 활성화에 힘입어 6% 이상의 높은 GDP 성장을 지속
 - 주민들의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내수 활성화
 - 외국기업들의 대리투자 지속 증가 및 건설경기 견실
- ☐ 현지 달러화 대비 루블화 강세에 따른 수입여력 증대
 - 연초 환율 연말까지 1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
 - 루블화 강세에 따른 구매력 확대 추세
- ☐ 국제원유가 상승 및 오일머니 유입 증대에 따른 외환보유고 증대
 - 국민 가처분 소득(2007.상반기 11.2% 증가), 실질 구매력 확대

[우크라이나]

- ☐ 정치 경제적 안정
 - 2007. 9. 30 총선 이후 연말까지 신내각 구성 예상

- 신 내각은 친 서방 정책 노선의 오렌지 팀일 확률 확실
- 자본주의 경제 발달 기대, 무역 증대 기대

□ 경제 성장 지속

- 2007년도 경제 성장률 : 약 10% 예상
- 2008년도 경제 성장 가속화 전망

[카자흐스탄]

□ 원유, 가스, 우라늄 등 에너지산업의 고성장 기조 유지 전망

- 국제유가 및 광물자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수증가로 인프라 및 사회보장분야 투자확대 전망
- 카자흐스탄 정부는 원유자원 매장량을 세계 7위 수준으로 산정
- 우라늄, 금, 은, 구리, 아연, 망간 등도 세계 10위 수준 매장량

□ 에너지자원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직접투자 급속한 증가

- 2007년 하반기 「지하자원이용법」 발효로 일부 외국투자기업과 분쟁이 발생했지만, 기타 에너지자원 개발 목적 FDI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

□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개혁·개방정책 지속 추진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집권 장기화에 따른 경제 개혁, 개방 정책기조 유지 또는 강화 전망
- 정치적인 안정기반 하에 정부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거시경제 운영 및 시장경제로의 경제개혁정책 강력 추진

□ 「2015년까지의 산업혁신전략」 바탕 산업다변화 정책 추진

- 원유, 가스산업 이외 석유화학, IT, BT 등 신기술 분야를 포함한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정책 추진
- 기타 제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및 농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제반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2030년까지의 장기 종합개발 정책 지속 추진
- 제조업 육성정책 추진으로 인한 설비, 원부자재 수요증가 전망

☐ 강력한 국내소비를 바탕으로 GDP 고성장 유지

- 일반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구매력 상승으로 인한 소비시장 확대 전망

- 1인당 GDP : 3,752('05) → 5,214('06) → 6,373('07) → 7,606('08)천불 예상

[우즈베키스탄]

☐ 양호한 경제성장

- 2007년 상반기 GDP 성장률 9.7%기록, 2008년 7%대의 지속적 성장 예상
- 수출호조, 러시아 및 아시아국들의 투자증가가 견인차 역할

☐ 우즈베크 정부의 경제개혁 노력

- 민영화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은행, 호텔, 국영기업 등의 지분매각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도

☐ 국제 자원가격 상승으로 우즈베크 수출 호조

- 주요 수출품인 금, 천연가스, 면화의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증가
- 경상수지 흑자기록, 외환보유고 증가

☐ 인접한 CIS 국가 경제발전 효과 공유

- 러시아경제 호조에 따라 대러시아 자동차 수출증가
- 2008년 10만대 예상
-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와의 교역량 큰 폭 증가 추세
- 카자흐스탄에 대한 농산물 및 시멘트 등 건축자재 수출호조

나. 비관적 요인

[총 괄]

- ☐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 ☐ 관료주의, 부정부패, 물류유통시스템 불량으로 수출여건 악화
- ☐ 에너지, 천연자원 의존적 취약한 경제구조

[러시아]

□ 루블화의 평가 절하 가능성

- 자국 산업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루블화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나, 내년 3월 대선이후에는 환율에 대한 정부 통제가 약화되어 평가 절하 가능성이 높아질 것 예상

□ 대선 및 총선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

- '07. 12월 총선 및 '08. 3월 대선을 앞두고 물가 상승률 억제, 안정적 경제 환경 창출을 위하여 추가적인 루블화 강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2008년 3월 대선의 경우, 정권교체에 따른 경제 분야의 안정성 확보 여부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으며, 최근 푸틴 대통령이 갑작스레 향후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을 밝히는 등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빅토르 추코프를 신임 총리로 임명하면서, 대선 구도에도 변화를 가져온 상황임.

□ 관료주의에 따른 대외신인도 지속 하락

- 통관문제, 비자문제 등 관료주의적 폐해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 따른 신인도 하락으로 대외관계 위축

[우크라이나]

□ 경제 개혁 시도

- 지하경제가 총 GNP의 40%인 취약한 경제 구조상 신정부의 경제 개혁 시도 확실히
- 지하 경제 치유를 위한 제도 개혁 시 경제 위축

□ 정치적 불안

- 신 내각 구성에 러시아 개입시 정치 혼돈 초래
- 2007년에 이어 2008년도 정치적 불안 지속 가능

□ 에너지 분야 구조 취약

- 러시아에서 공급하는 저렴한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 취약
- 러시아의 에너지 가격 인상 시 큰 파동 발생

[카자흐스탄]☐ 시중은행의 무리한 해외차입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조짐

-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야기한 국제금융시장의 신용위축으로 외채상환 압력 가중
 - 자금조달금리 상승으로 인한 해외차입 부담으로 카자흐스탄 금융권 신용경색 조짐
 - 카자흐스탄 부동산 건설경기 급격한 침체현상 발생

☐ 유동성 위기 처방으로 위한 긴축통화정책 추진 전망

- 중앙은행의 엄격한 통화정책 운영과 현지화 평가절상정책 추진 등으로 과도한 인플레이션 발생 및 국내소비 위축 가능성 상존

[우즈베키스탄]☐ 외환규제 및 수입 통제

- 환전지연, 통관지연 문제 상존
 - 과실송금이 사실상 어려움

☐ 외국인투자관련 정부정책의 불투명 및 예측성 미흡

- 외국인투자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정부심의를 거쳐 투자 인센티브 제공
 - 투자시 인센티브 및 투자조건 등을 관계 당국과 협의 필요
- 대통령령 또는 내각령을 통해 수시로 정부방침 결정

2. 수출전망**가. 총괄표**

(단위 : 백만불, %)

지 역	2006 실적(증감률)	2007추정(증감률)	2008전망(증감률)
CIS	7,247(32.5%)	10,146(40%)	13,190(30%)

나. 전망근거

1) 밝은 면

[러시아]

☐ 대러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수출 증가세

- 금년 1~9월기준 전년동기 대비 103% 증가
 - 특히 NF 소나타, 그랜저 등 차종의 신규 고가 모델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액 증가가 가속화

☐ 주력 상품의 높은 수출 증가율

- 휴대폰(전년비 560% 증가), 합성수지, 자동차 부품, 건설중장비(187%증가) 등 우리나라의 금년도 9월 누계 상위 대러 수출 품목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한국기업의 대러 투자진출 증가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의 신규공장 설립, 롯데백화점의 본격영업개시, 오리온의 증설, 범한판토스, 모비스의 물류기지 등의 투자진출로 완제품 및 부품소재 수출 증가 전망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의 자동차 산업 육성정책과 한국의 선진 자동차 산업의 협력 가능성 높음

- 대 우크라이나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협력지속 전망

☐ 생활 용품 생산 자재 및 건축 자재 및 건설 장비 시장 급증세

- 합성수지등 생활용품 원료 수요 폭증
- 8년간 지속된 건축 경기 호황 덕분에 건축자재 및 건설 장비 수요 급증

[카자흐스탄]

☐ 주재국 경제여건 호조세 유지

- 2007년 상반기 GDP 10.2% 등 고도성장 지속
 -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산업다변화 정책 등에 힘입어 2008년도 10% 이상의 성장세 유지 전망

- '08년 수입규모는 전년비 10% 이상 성장 전망

□ 국민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한 내구성 소비재 수요 지속 증가

- 자동차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한국산 수요 급격한 증가 전망
 - 한국산 승용차 수입증가율 '06년 55%, '07년 2200% 이상 증가, '08년에도 지속 증가 예상
 - 현지 고소득층 상대 한국산 고가 가전제품 및 무선통신기기 수요 증가 추세

□ 2011 동계아시안게임 준비, 도시재개발, 도로 및 주택건설 확대 등 인프라 확충에 따른 장비, 자재, 관련 서비스 수요 증가 예상

- 한국산 건설장비 수요 증대 추세
- 한국산 엘리베이터 수입 수요 폭증

□ 제조업 육성정책 추진에 따른 설비 및 원부자재 수요 증가

- 포장기계, 섬유기계, 전자재 생산설비, 석유화학원료 등

[우즈베키스탄]

□ 우리기업들의 우즈벡 시장 진출 증가

- 투자진출 확대로 원자재 수출증가
 - 조립 및 생산을 위한 원료 및 부품 수출 증가

□ 주종 수출품의 수출확대

- 우즈벡 자동차 조립회사의 생산량 증가로 자동차부품 및 원동기 수요증가
 - GM대우의 우즈대우자동차 지분참여 및 신차종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부품 수출 증가 예상

2) 어두운 면

[러시아]

□ 자동차 부문의 생산 계획 준수 여부

- 자동차류(부품 포함)는 우리나라 대러 수출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생산 능력에 전체 수출량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절대적임.

- '06년도 판매 1위를 차지한 Ford社가 시장 1위를 기록한 것은 안정적 생산과 물류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될 만큼, 폭발적 시장에 대해서 생산 및 운송 능력이 관건임. 이러한 시장 성장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에도 한국에서의 안정적 생산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 현지 투자 증가에 따른 완제품 수출 감소 영향

- 가전제품의 현지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완제품 수출방식에서 조립품 수출이 전환됨에 따라 상대적 증가폭이 감소 예상 최근 삼성전자 공장착공, 현대자동차 현지 생산 공장 설립을 결정하는 등 조립 생산을 위한 부품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현지 조달 부품 증가에 따른 완제품의 수출 감소가 예상됨.

□ 원화 강세에 따른 기업의 가격 경쟁력 약화 영향

-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의 경우, 환율 변동을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 약세에 따른 영향을 적게 받고 있는 상황임.
- 또한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주요 소비재 품목에 대한 대러 수출이 많은 중국의 경우, 환율 변동이 적은 것에 따른 상대적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일본의 경우 한국산 제품보다 전반적으로 고가의 제품으로 포지셔닝 되어있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은 점, 주요 시장에 대한 높은 점유율로 인한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높은 점,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점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음.

[우크라이나]

□ 한국 상품 수출 폭증으로 우크라이나의 수입 규제 가능성

- 수입액에 5배가 넘는 수출액으로 8억불 적자

□ 주종 수출품인 자동차 수출 증가율 감소 전망

- 슬로바키아등 동구권 제조 한국자동차 수입실적이 동구권 국가로 계상
- 2007년도의 밀어내기식 수출 방식 개선 전망

[카자흐스탄]

□ 단기유동성 위기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관련제품 수입 감소

- 시중은행들의 신용경색 조짐으로 대출조건 강화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한국투자건설업체의 프로젝트 진행 연기 및 관련 원부자재 수입 감소 전망

□ 가전제품 시장의 판도 변화 가속화

- 파나소닉, 소니 등 일본 가전회사의 신제품 출시 및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기존 한국산 제품의 시장 잠식 우려
- 또한 한국 브랜드 제품의 경우, 현지생산 및 제3국 생산제품의 반입물량 증가로 한국으로부터 직수출 대체 규모 증가

[우즈베키스탄]

□ 경쟁국과의 경쟁 심화

-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CIS 국가들의 우즈벡 교역증가
- 중국의 투자 및 저가품 위주 수출증가 추세

□ 국제유가상승 및 원화 절상에 따른 경쟁력 약화

- 합성수지, 식물, 자동차부품 등 주종 수출품 가격경쟁력이 유가상승 및 원화절상으로 인해 경쟁국 대비 약화

다. 종합의견

-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CIS국가들의 고도 경제 성장에 따라 자동차, 기계류, 생활소비재 등 완제품 및 부품의 수입증가로 내년도에도 30% 이상의 수출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금년 최초 100억불을 초과하고 내년에는 130억불 이상 예상
- 반면, 일본 및 중국제품, 전세계 다국적 기업들의 현지 진출강화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 여부 및 정부차원의 지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3. 주요 수출품목별 전망

가. 총괄표 (A)

[러시아]

품목명 (MTI코드)	'08 연간전망 ('07년 대비)	전망근거 요약
일반기계 (71,72,73,79)	대폭증가	- 러시아내 제조생산설비 증가 및 교체 수요 - 건설시장 호황에 따른 장비 수요 증가
자동차 (741)	대폭증가	- 구매력 증가에 따른 자동차 수요 급증 - 신용 구매 활성화
철강제품 (61)	소폭감소	- 러시아 현지 생산 증가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 - 철강재에 대한 플라스틱 대체 제품 수요 증가
석유화학제품 (21)	현상유지	- 현지 생산에 따른 수입 물량 감소 - 중국산 제품의 저가 전략에 따른 경쟁 강화 - 유럽 물량의 증가에 따른 러시아로의 공급 물량 부족
섬유류 (4)	소폭감소	- 벨라루스산, 중국산 제품과 경쟁에 따른 수입감소 - 원화 강세에 따른 한국산 제품의 가격 상승
평판디스플레이 (8361)	대폭증가	- LCD 가격 하락에 따른 시장 규모 증가 - CRT 시장의 축소에 따른 대체 수요 증가
무선통신기기 (821)	소폭증가	- 휴대폰 시장 포화단계에 진입 - 대체 수요에 따른 고급화 추세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고급화 전략이 효과 예상.
반도체 (831)	현상유지	- 한국산 제품의 선호도 증가
가전 (82)	소폭증가	- 가전 시장 포화에 따른 정체 현상 - 러시아 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 기반 약화
자동차부품 (742)	대폭증가	- 한국산 차량 판매 급증에 따른 A/S 시장 증가 - 현대모비스, GM Daewoo 등 현지 부품 시장공략 활발
컴퓨터 (813)	소폭증가	- 노트북 시장 활성화에 따른 시장 증가 - 대만 제품의 가격 인하에 따른 시장점유율 감소
타이어 (3203)	대폭증가	- 자동차 시장 활성화에 따른 수요 증가
선박류 (7461)	소폭감소	- 러시아 정부의 조선산업 육성 정책

자료원 : 바이어(49)개사, 주재상사(9)개사, 조사기관(2)사, 기타(1) 등

[우크라이나]

품목명 (MTI코드)	'08 연간전망 ('07 대비)	전망 근거 요약
승용차 (7411)	소폭증가	- 슬로바키아 등 동구권 제작 물량이 한국에서 직접 수출하던 물량을 대체하게 되어 한국에서의 수출 증가율이 전년비 대폭 둔화될 것임.
승용차 부품 (7420)	대폭증가	- 완성차 조립용 부품 : 상동 - A/S용 부품: 수출 증가세 양호 전망
합성 수지 (2140)	대폭증가	- 생활용품 산업 발달로 원료 소재 수요 지속 증가
냉장고 (8230)	대폭증가	- 중국산 한국 냉장고의 덤핑 제소로 한국산 직수출 증가 예상 - 한국산 가전제품 인식 양호
세탁기 (8241)	대폭증가	- 한국산 가전제품 인식 양호 - 한국 가전 업체 마케팅 양호
아연도 강판 (6134)	대폭증가	- 최근 수출 급증 품목
편직물 (4360)	소폭감소	- 중국산등 진출로 매년 감소 추세
진공청소기 (8245)	대폭증가	- 한국산 가전제품 인식 양호 - 한국 가전 업체 마케팅 양호
건설 중장비 (7251)	대폭증가	- 건축 붐에 따른 건설중장비 수요 증가
에어컨 (8242)	대폭감소	- 2007년도 이상 기온으로 수입 급증 - 추가 수요 소폭 증가 예상

자료원 : 바이어(8)개사, 주재상사(5)개사, 기타(9) 등

[카자흐스탄]

품목명 (MTI코드)	'08 연간전망 ('07 대비)	전망근거 요약
일반기계 (71,72,73,79)	소폭증가	- 제조업용 기계류 수출 약진 전망 - 한국산 기계류에 대한 이미지 구축과 현지 한국 투자업체가 들어오는 원부자재 기계류의 수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자동차 (741)	대폭증가	- 현지 공격적인 마케팅과 한국산 승용차 브랜드 이미지 구축으로 수출물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07년 전년대비 거의 2배 이상 수출 증가
철강제품 (61)	대폭증가	- 현지투자 한국건설업계의 원부자재 물량이 급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07년도 수입물량이 거의 2배에 가깝게 증가함.

석유화학제품 (21)	소폭증가	- 현지 전자재생산원료 수요 및 PET병 생산수요 폭증으로 수출물량 확대 예상 - 현지 수요 정체현상으로 증가폭은 소폭 예상
섬유류 (4)	소폭감소	- 의류 등 완제품 수요는 인지도 상승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직물 및 원료 수요는 감소세 - 특히 직물류는 제3국 경우 수출로 통계 미적용
무선통신기기 (812)	소폭증가	- 2007년 현지 거래선 재정비 및 직수출 물량 급증 - 2008년 한국산 수요 한계로 소폭 증가 전망
반도체 (831)	소폭증가	- LG전자의 원부자재 수입물량 소폭 증가 전망
가전 (82)	소폭증가	- 전통 단순형 가전은 현지생산 또는 제3국 반입으로 직수출 감소 - PDP TV 등 최첨단 제품은 직수출 물량 집중 - 에어컨 등 계절 상품은 시기적으로 폭증 양상을 보이기도 함. - 가전 3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점유율 확대 전망
자동차부품 (742)	대폭증가	- 신차는 물론 중고차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라 관련 물량의 수출증가 효과
컴퓨터 (813)	대폭감소	- 미국제품의 강세, 저가의 현지유통브랜드의 시장지배 확대로 한국산 시장점유율 축소
선박류 (7461)	소폭증가	- 총 수출물량이 7만불 내외로 레저용 모터보트가 수출물량 전부 차지함.

자료원 : 바이어(10)개사, 주재상사(3)개사, 조사기관(2)사, 기타(2) 등

[우즈베키스탄]

품목명 (MTI코드)	'08 연간전망 ('07 대비)	전망근거 요약
일반기계 (71,72,73,79)	대폭증가	- 자동차 내연기관 수출증가 - 주재국 산업용기계류 수입증가 추세
자동차 (741)	현상유지	- 높은 자동차수입 관세율로 수출한계 - 중고차 중심의 수출
철강제품 (61)	소폭증가	- 주재국 자동차생산 증가 및 국내건설 경기호조 - 경쟁 심화
석유화학제품 (21)	소폭증가	- 산업용 원자재 수입증가 - 원가상승에 따른 수입 감소
섬유류 (4)	소폭증가	- 직물중심의 수요확대 - 중국, 터키제품과의 경쟁치열
무선통신기기 (812)	현상유지	- 이동통신시장 급격한 증가추세 - 저가 모조품 범람

타이어 (3203)	소폭증가	- 자동차 증가에 따른 수요 점증 - 경쟁제품 진출 확대에 따른 경쟁심화
가전 (82)	대폭증가	- 소비자들의 가전 수요 점증 - 한국산 브랜드 인지도가 높음
자동차부품 (742)	소폭증가	- 자동차 생산증가에 따른 수요확대 - 경쟁국의 진출증가
컴퓨터 (813)	대폭감소	- 유명제품대비 인지도 약함 - 가격 경쟁력 취약
석유제품 (133)	대폭증가	- 자동차시장 확대에 따른 수요증가 - 윤활유 경쟁력보유
플라스틱제품 (310)	소폭증가	- 산업용 플라스틱 수요증가 - 플라스틱 생활용품 수요 증가추세

자료원 : 바이어(15)개사, 주재상사(3)개사, 조사기관(1)사, 기타 투자업체(8) 등

다. 주요품목별 수출전망 근거

1) 일반 기계류 : 대폭증가

- 노후화된 기계설비 교체 시기 도래
- 정부 및 금융기관에서 국내 생산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 기계류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 도입 등 제도적 지원

2) 자동차 : 대폭증가

- 금년 수출은 약 3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러시아 등 각국의 소비 수준 증가에 따른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
- 신용 구매 시스템의 활성화에 따른 중산층 수요의 증가

3) 철강제품 : 소폭감소

- 러시아 현지 생산 증가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
- 철강제품에 대한 플라스틱 대체 제품의 시장 점유율 증가 추세

4) 석유화학 : 현상유지

- 러시아 현지 생산 메이저 업체의 시장 점유율 증가로 중소 수입 업체들의 판매 부진이 이어져 수입 감소 추세

- 일부 한국 기업의 경우, 유럽 지역 물량의 증가에 따른 러시아 수출 물량이 부족한 상황 발생 예상됨.

5) 섬유류 : 소폭감소

- 벨라루시산, 중국산 제품의 저가 전략에 따른 경쟁 강화. 특히 벨라루시산의 경우 지리적적으로 이점으로 인하여 물류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 유리함.
-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평가

6) 평판 디스플레이 : 대폭증가

- LCD 가격이 경쟁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구매력 증가와 맞물려 시장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CRT 사용 제품들의 노후화에 따른 대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7) 무선통신기기 : 소폭증가

- '07년에는 핀란드를 경유하는 우회 수입에서 러시아로의 직수입으로 변경되어 수입액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08년에는 큰 증가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러시아 휴대폰 시장은 포화시장으로 분류되고 있음.
- 신규수요보다는 대체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고급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판매하는 기업에 비해서 유리한 상황임.

8) 반도체 : 현상유지

- 러시아 반도체 생산업체들의 열악함 및 관련 생산업체들 또한 매우 뒤떨어져 있어, 수입은 2006년도와 같이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9) 가전 : 소폭증가

- 러시아 주민들의 실질소득은 매년 10% 이상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구성 소비재 구매가 가능한 수요가 증가
- 90년대 중반 이후 많이 구입했던 가전제품들의 교체 수요, 신형 제품의 출시에 따른 구매수요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현지 투자 증가, 시장 포화 및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큰 폭의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10) 자동차부품 : 대폭증가

- 러시아 등 지역국가 내 한국산 자동차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A/S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현대 모비스가 모스크바 인근에 물류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러시아 수출의 큰 애로 사항이었던 물류 상황이 호전될 경우 더욱 큰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11) 컴퓨터 : 소폭증가

- 현지 수입시장의 60% 가량을 중국 및 대만이 점유하고 있고, 특히 50% 이상 점유하고 있는 중국의 시장 점유는 더욱 증가하고 있음.
- 노트북 시장의 경우 대만산 제품의 저가 공세로 인하여 국내 업체에 부정적 영향 주고 있으나,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수출액은 소폭의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12) 타이어 : 대폭증가

- 자동차 판매 증가에 따른 시장 수요 증가하고 있으며, 가격경쟁력 높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13) 선박류 : 소폭감소

- 한국의 선박주문량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현지로부터의 선박수주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4. 2008년 수출유망품목**1) 일반기계 (HS : 84)**

- 최근 5년간 매년 30~50% 가량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후화된 기계설비에 대한 교체 시기 도래
- 또한, 최근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건설붐에 따라 건설장비 등의 수요가 높은 상황임. 특히 폴리스티렌 생산 설비의 경우 건설자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유망한 품목으로 분류됨.
- 아스팔트 배차플랜트, 벽돌 생산시설, 시멘트 플랜트에 이르기까지 현지 한국산 기계/플랜트 수요 증가

- 한국산 가격/품질 경쟁력에 대해 현지 바이어들의 고평가
- 전자재(샌드위치 판넬 등) 생산 기계에 대한 신규 수요 증가
- 플라스틱 사출기의 경우 한국산 제품이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장 진출이 긍정적인 상황임.

2) 산업용 세탁기 (HS 845140)

- 전반적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세탁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 한국에 비해서 세탁비용이 3~4배 이르기 때문에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분류되어 성장 가능성이 높음.

3) 평판디스플레이 (MTI 836)

- 러시아내 내수 증가 및 전자제품 조립생산 증가로 평판디스플레이 수출이 유망함.

4) 유선통신기기 (MTI 811)

- 실질소득 향상, 휴대폰의 생필품화 등으로 최신식 유선전화기로의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신규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유선통신기기 수요가 증가

5) 시멘트 (MTI 241)

-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건설, 리모델링 붐이 일어나면서 시멘트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 공급이 부족한 상태.

6) 식품가공포장기계 (MTI 724)

- 러시아내 식품가공 산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관련 기계류의 수출이 유망함.

7) 엘리베이터 (MTI 745)

- 건설경기의 확장, 구식 엘리베이터는 노후화가 극심한 상태이며, 최근 고층 건물 건설이 늘어나면서 고급 엘리베이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8) 운동기구 (MTI 541)

-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일년의 절반가량이 겨울철인 기후조건으로 실내 운동을 위한 각종 운동기구 수요가 매우 큼.

9) 의료용 기기(HS/MTI 733)

- 고급 의료수요 확대 및 기존 의료기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 수요 다대
 - 초음파 측정기, 엑스레이 등 기초 검사기기에 따른 수요 확대

10) 합성수지(MTI 214)

- 플라스틱 가공업 발달 및 패트병 사용 증가로 합성수지 수요가 점증하고 있음, PP, PE 수요가 주종

중동아프리카지역

1. 2008년 중동아프리카지역 경제 및 시장여건

가. 낙관적 요인

□ 고유가 지속으로 막대한 오일머니 유입

- 2008년 국제유가는 중국, 인도 등의 수요증가, 달러 약세 지속에 따라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평균 71~75달러 내외의 고유가 현상이 지속될 전망

〈해외 주요기관 유가전망〉

(단위 : 미달러/배럴)

구 분	기준유종	2006	2007	2008
		년평균	년평균	년평균
세계에너지센터(CGES)	Brent	65.00	70.30	78.50
캠브리지에너지 리서치(CERA)	Dubai	61.46	68.07	70.56
미국에너지정보청	WTI	66.02	71.36	79.92
석유산업연구소(PIRA)	Brent	65.15	71.85	77.90

- 중동 주요 산유국의 오일머니 유입액 급속 증가

〈중동아프리카 주요 산유국 원유수출액 현황〉

(단위 : 억불)

국가명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년대비 증가율(%)
사우디아라비아	638	823	1,109	1,618	1,937	19.7
아랍에미리트	218	252	381	499	698	39.9
이란	192	261	343	532	591	11.1
나이지리아	171	222	333	476	476	0.0
쿠웨이트	141	190	267	424	547	29.0
알제리	124	165	231	329	383	16.4
리비아	95	136	187	283	370	30.7
이라크	126	75	178	215	288	34.0
카타르	69	88	117	176	243	38.1
총 계	1,774	2,212	3,146	4,552	5,533	21.6

자료원 :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06

- 세계 석유 생산량의 약 43%를 점유하고 있는 중동아프리카 산유국들은 최근 6년간의 고유가 기조 속에 내년에도 사상 최대의 오일머니 유입이 지속될 전망
- '07년도 원유수출액은 '06년 대비 약 10% 증가, 6천억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3년간 오일머니 유입액이 1조 6천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임.

□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세 지속

- 중동지역의 정치적 갈등상황과 주변정세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풍부하게 유입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투자확대, 경기활성화 등으로 인해 고성장세 지속할 전망
 - 실질GDP 성장률(2008년 예상치) : 중동 6.1%, 아프리카 6.8%
 - 세계 평균 실질GDP 성장률 : 4.8%
(자료원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2007)
- 경상수지 흑자 증가, 재정수지 흑자 증가, 대외 부채 감소 등 중동아프리카 전체적으로 본격 성장궤도 진입

□ 막대한 오일달러 기반, 장기성장 기반 구축 분야에 집중 투자

- 중동아프리카 산유국들은 고유가로 확대된 정부재정과 외국투자자본 유치를 통해 대규모 신도시 및 리조트 건설, 공항 및 항만 확충, 오일가스, 발전, 담수, 석유화학, 기타 산업설비 등 대대적인 SOC 및 중화학 산업 육성
- 2007~2008년 2개년간 기발주 또는 발주예정 프로젝트만 9천억불에 달하며, 발주예정금액의 약 80%를 건설 및 오일가스 산업에 투자
(자료원 : Meed Projects DB, '07.6월 기준)

나. 비관적 요인

□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정

- 이라크의 종파 간 내전상황 지속, 이란 핵문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스라엘-시리아간 갈등 등 주변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
- 이라크의 경우 현정부의 행정력 취약, 독자적 치안능력 미흡, 테러조직 및 저항세력의 치안 불안 조성 상존 등으로 단시일내 치안 확보 난망
 - 미군 철수로 인한 치안 공백 발생시 바그다드 등을 중심으로 치안 악화 전망

□ 핵 문제로 인한 대이란 제재 본격화

- 대이란 수출 및 투자에 대한 UN 차원의 제재 개시
- 특히, 2007.10월 미국의 추가 금융제재로 인해 L/C 인수 등 이란은행과의 금융거래가 원활치 못한 상황

□ 원화 환율 하락 및 강세유지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 최근 4년간 원화 절상률은 유로화, 스웨덴 크로네화, 캐나다달러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며, 2008년에도 원화의 대미환율은 하락세를 유지할 전망
- 원화 절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경쟁상대국인 일본, 중국의 상품에 대한 아국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채산성 악화가 지속될 전망

2. 2008년 對중동아프리카지역 우리나라 수출전망

가. 총괄표

<중동>

구 분	단 위	2007년	2008년
금 액	백만불	19,728	24,660
증감률	%	36.4	25.0

<아프리카>

구 분	단 위	2007년	2008년
금 액	백만불	9,701	11,641
증감률	%	25.5	20.0

나. 전망근거

1) 밝은 면

□ 대규모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발주 확대에 따른 관련기자재 수입수요 확대

- 석유·가스, 석유화학, 전력, 담수, 부동산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가 확대되고 있고, 2007~2008년 기간 중 기발주 또는 발주예정 프로젝트만 9천억불에 달함에 따라 각종 기자재 수요 대폭 증가 예상

○ 우리기업의 잇따른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기자재 수출 급증 전망

- '06년도 : 중동 90억불, 아프리카 37억불 등 총 127억불 수주

- '07.1~9월 : 중동 113억불, 아프리카 41억불 등 총 154억불 수주

□ 고유가에 의한 재정수입 확대 및 소득증가에 따라 수입수요 확대

○ 막대한 오일머니 지속 유입으로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정부 재정수지 흑자폭이 2004년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

〈중동아프리카 재정수지 : GDP 비중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중동	-0.1	2.5	6.1	7.0	5.8	6.1
GCC	3.4	11.0	19.0	22.8	21.0	20.4
아프리카	-2.2	-0.2	1.7	5.0	0.8	1.9
아프리카 산유국	-0.8	5.1	8.7	12.6	3.8	7.4

주1 : 중동 (북아프리카 포함 MENA지역),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

주2 : 아프리카 산유국 (나이지리아, 앙골라, 카메룬, 차드, 콩고, 적도기니, 가봉)

자료원 :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2007.10월

○ 산유국들의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정부 재정투자 확대, 외국 민간자본의 역내 FDI 증가를 바탕으로 고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며, 상품 및 서비스 수입수요 증가율 또한 중동 13.0%, 아프리카 9.1%에 달할 것으로 전망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7년 10월)

□ 한국상품 인지도 향상 및 가전제품 시장 석권

○ 승용차, 정보통신제품, 가전 등 대기업 제품을 중심으로 한국상품의 인지도가 지속 향상

○ LCD/PDP TV, 대형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 시장에서 삼성, LG 등 아국 브랜드 제품이 시장 석권

○ 무선전화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및 LG전자가 노키아, 모토로라, 소니에릭슨과 함께 5강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가는 추세

○ 이란에서는 최근 시청율 80%로 인기리에 종영된 대장금 등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류 붐 조성

□ 한-알제리 경험 추진 본격화

- 2006년 상반기 대통령의 알제리 방문 이후 다각적인 경제협력 추진
- 모든 관심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패키지형 협력관계 구축
 - 경제·산업정책, 무역·투자, 에너지 자원, 플랜트·건설, IT 등
 - 2008년 중 신도시 프로젝트의 국내건설업체 컨소시엄 수주 예상

□ 중동 주요국, 경제개발 및 복구 계획 본격 추진

- 사우디, UAE,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 중심 대규모 경제개발계획 추진
 - 사우디 : 향후 15년간 약 7,000억불 규모의 중장기 투자계획 발표
 - UAE : 2010년 UAE 개발 계획, 2015년 두바이 경제개발 계획, 아부다비 비전 2030 발표에 따라 대규모 신도시, 관광, 물류 투자 확대 및 오일가스,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육성
 - 쿠웨이트 : 향후 750억불 투입, 5개년 경제개발 계획 본격 추진
 - 남아공 : 2010년 월드컵 개최 준비 및 신경제성장정책 추진을 통해 전력, 통신, 교통 등 사회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본격 추진
 - 리비아 : 2011년까지 주택, 항만, 도로, 호텔건설 등 인프라 확충에 400억불 투자
 - 알제리 : 도로, 항만, 공항, 주택, 통신, 철도 등 인프라 구축에 1,000억불 투자

2) 어두운 면

□ 경쟁국 통화 대비 원화의 지나친 환율하락으로 수출경쟁력 약화

- 중국 위안화 및 일본 엔화에 비해 과도한 원화의 평가절상 지속으로 가격경쟁력 약화
 - 원/엔 환율 하락으로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디지털 가전, 정보통신기기의 가격경쟁력 약화

□ 중동아프리카지역의 정치적 불안정

- 이라크의 종파 간 내전상황 지속, 이란 핵문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스라엘-시리아간 갈등 등 주변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
 - 이란 : 핵 문제 장기화, 대이란 금융제재로 인해 대이란 수출대금 결제가 원활치 못한 상황

- 이스라엘 : 대이란, 시리아, 팔레스타인 긴장 고조에 따른 불안 상존
- 이라크 : '08년부터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 시작, 정.종파간 복잡한 이해관계 등 치안 불안 지속 전망
- 나이지리아 : 최근 나이지 델타 지역의 근로자 납치사건이 빈번하게 발생, 경제활동 위축
- 남아공 : '07년 12월 강경인물이 차기 집권여당 총재 선출시 외국투자자본 이탈 등 경기 위축 우려

□ 중국 등 외국업체와의 경쟁 심화 추세

- SOC, 부동산 및 플랜트 수주 분야에서 중국, 인도, 터키 등 후발업체들의 추격으로 수주경쟁 심화 전망
- 최근 동남아를 비롯한 중국산 저가 상품의 다량 유입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저하되어, 수출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

□ 물가 불안, 리비아 에이전트법 시행 등으로 인한 수입시장 위축

- 중동아프리카 지역 물가 불안 심화로 민간소비 위축 우려
 - '08년 인플레이션 (전망) : 중동 7.8%, 아프리카 6.8%
 - GCC국, 달러화 연동(Peg) 정책에 따라 자국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지속 상승, 임차료 급등으로 실질 구매력 저하
- 리비아, 주요 품목 수입과 관련하여 에이전트법 본격 시행
 - 에이전트 등록, 독점 에이전트 계약 체결 등으로 수입시장 위축 우려

□ 경쟁국-GCC간 FTA 체결 추진에 따른 한국상품 경쟁력 약화 우려

- 중국, 일본, EU 등 경쟁국들의 적극적인 FTA 추진으로 한국보다 조기에 FTA체결 전망
 - 경쟁국의 GCC와의 FTA 체결은 한국상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한국상품의 시장점유율 잠식 우려
 - 한국은 GCC와 '07년말 FTA 1차 협상 개시 예정

□ 우리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으로 한국산 제품 수출액 감소

- 우리 상품의 생산기지가 중국, 동남아 등 해외로 옮겨 가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직접 상품 수출이 감소 추세

- 특히, 휴대폰, 가전제품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의 경우 저가 보급형 제품은 중국 및 동남아 생산기지로부터 직접 중동아프리카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어, 한국산 제품의 수출확대에 한계점 노정

다. 종합의견

- 2008년 중동아프리카 시장은 고유가로 인해 풍부하게 유입되고 있는 오일머니를 재원으로 각종 프로젝트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금년에 이어 수출호조세는 지속될 전망
- 특히, 일반기계류 및 플랜트 기자재, 자동차, 철강제품, 합성수지, 무선전화기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원화환율의 지속적 하락에 따른 한국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중소수출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될 경우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3. 품목별 수출전망

가. 주요 품목 수출전망

품목명 (MTI코드)	'08 연간전망 ('07년 대비)	전망근거 요약
일반기계 (71,72,73,79)	대폭증가	- 산유국을 중심으로 기계,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확대 - '07년 한국의 플랜트 수주액이 154억불을 초과함에 따라 관련 기자재 수출확대 전망
자동차 (741)	대폭증가	- 개인소득 증가, 대중교통수단 취약, 한국차에 대한 품질 인지도 제고 등으로 지속 수출확대 전망 - 대이란, 알제리 승용차 수출 대폭 증가 전망
철강제품 (61)	대폭증가	- 건설경기 호조,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발주 확대에 따른 수요 급증 - GCC국을 중심으로 대폭증가 전망이나, 이란 금융제재 여파로 대이란 수출은 소폭 감소 전망
석유화학제품 (21)	대폭증가	- PET, PP, HDPE, PS, PVC 중심으로 한국산 합성수지 수요 확대
섬유류 (4)	현상유지	- 환율하락 및 중국산 대량 유입으로 경쟁력 크게 약화 - 모포, 폴리에스테르섬유는 10% 이상 증가 전망이나, 폴리에스테르직물 등 직물류는 현상유지 또는 소폭감소 전망

무선통신기기 (812)	소폭증가	- 삼성, LG전자 휴대폰의 현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중국, 인도 등지에서 주로 소싱 - 위성방송수신기는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시장잠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30-40% 대폭 감소 예상
가전 (82)	현상유지	- LCD TV, 냉장고, 에어컨 중심으로 한국 브랜드 제품 수요 급증 - 단, TV 및 백색가전제품 소싱이 한국을 비롯, 중국, 태국, 인도 등지로 다변화되면서 한국산 제품 수출은 현상유지 전망
자동차부품 (742)	소폭증가	- OEM 부문에서 이란산 비중의 확대에 대이란 수출 위축 - 이란을 제외한 기타 지역은 한국산 부품수출 호조로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 전망
컴퓨터 (813)	소폭감소	- 한국산 노트북 PC 진출 유망하나 환율하락에 따른 경쟁력 약화 및 중국, 대만산 저가 노트북 대량 공급에 따라 수출 소폭 감소 전망 - LG전자 노트북의 경우 보급형은 중국공장에서, 고급형은 한국에서 소싱
석유제품 (133)	소폭감소	- 경유 수입수요 감소
선박류 (7461)	현상유지	- 편의국적선 수출 등 현상유지 전망

자료원 : 바이어(177)개사, 주재상사(57)개사

나. 주요 품목별 전망근거

1) 일반기계 : 대폭증가

- 유가상승에 따른 경기활성화로 담수, 전력, 건설 등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가 활발하여 관련 기자재의 수요증가세 지속
- '07년 한국 기업들이 중동아프리카 산유국을 중심으로 154억불을 크게 초과하는 플랜트 수주가 예상됨에 따라 '08년 한국산 기자재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공기조절기(열교환기 등), 펌프, 원동기, 가열난방기, 운반하역기계 등의 기초산업 기계와 화학기계(가열기, 증발기, 응축기 등), 건설중장비, 섬유기계, 고무플라스틱가공기계, 금속절삭가공기계 등의 산업기계류 수출이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
- 또한, 자국내 제조업 확대정책에 따라 산업단지 내 신규 공장증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관련 생산 라인의 수요증가 추세

2) 자동차 : 대폭증가

- 개인소득 증가, 대중교통수단 취약, 한국차에 대한 품질인식도 제고, 대이란, 알제리 수출 증가 등으로 지속 수출확대 전망
- 이란의 경우 '07년 소나타, 아제라를 중심으로 약 2만대 수출에 이어 '08년에도 큰 폭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미국 등 서방국의 금융제재 여파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가 관건 ('07.1~9월 대이란 수출증가율 : 143.4%)
- 알제리의 경우, 현대.기아자동차의 품질인식도 제고, 현대측 딜러의 무이자 융자제도 시행, 은행의 공무원들에 대한 자동차대금 융자특혜 부여 등을 시행함에 따라 큰 폭의 수입증가 추세('07.1~9월 대알제리 수출증가율 : 165.6%)
- 중아지역 최대 승용차 수출시장인 사우디의 경우 개인소득 지속 증가 및 경기활성화에 힘입어 20% 정도 증가할 전망
- 아프리카지역 최대 수출시장인 남아공의 경우 금리 인상, 대출심사 강화에 따라 신차 판매 감소가 예상되며, 아국산 소형 차량의 경우 인도 생산법인으로부터의 직수출 물량 증가에 따라 전체적으로 소폭 수출 감소 전망

3) 철강제품 : 대폭증가

- 건설경기 호조 및 메가 프로젝트 등 각종 플랜트 신규 및 확장사업으로 철강제품 수요 지속 증가
-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이집트, 바레인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란의 경우 금융제재 여파로 수출 소폭 감소 예상
- 주 수출품목은 형강(H-Beam, Angle), 철강재용기, 철강관, 주단강,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열연강판, 중후판, 철구조물, 철근 등이며, 고층건물 등 빌딩건설공사, 공장창고, 기초토목공사, 오일가스 수송용 파이프, 자동차조립공장(이란) 및 기타 철강제 제품 생산용으로 주로 사용

4) 석유화학제품 : 대폭증가

- 사우디, 이란, 카타르, 쿠웨이트, UAE, 오만 등 석유화학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 유분 및 중간원료 위주로 고부가 제품과 2차 가공상품은 외국산이 수요를 충당
- 산업전반에 걸친 경기활성화 영향으로 합성수지등 석유화학제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산 합성수지 제품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전년대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수출품목은 폴리에스테르수지(PET),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에틸렌(HDPE), 폴리스티렌(PS), 염화비닐수지(PVC), ABS수지 등으로 각종 플라스틱 생활용품 및 산업용품 생산에 이용
- 합성수지제품은 이란, 이집트, 남아프리카, 사우디, 알제리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5) 섬유류 : 현상 유지

- 저가의 중국제품 다량유입으로 시장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
- 환율하락, 중국산 저가제품 대량 유입으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나, 모포, 폴리에스테일 직물 및 폴리에스테일 섬유 위주로 소폭 증가 또는 현상 유지 전망
- 중아지역 주요 수출시장인 UAE, 사우디에서는 현상 유지, 이란에서는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차도르용 원단을 중심으로 한국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폴리에스테일 직물 수출이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6) 무선통신기기 : 소폭증가

-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 일부 아프리카 국가의 열악한 유선통신망 관리 등으로 휴대폰 등 무선통신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중
- 휴대폰시장 시장은 노키아, 삼성전자, 모토로라, 소니에릭슨, LG전자 등 5개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노키아와 삼성전자가 2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삼성전자가 금년 보급형 휴대폰인 E250 모델(소비자가격 약 150불 수준)을 출시하면서 휴대폰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LG전자 또한 초코렛폰, 샤인폰, 프라다폰 등 중.고급품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휴대폰 판매 급증에도 불구하고,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중저가 제품은 중국, 인도 현지공장에서, 프리미엄제품은 한국에서 공급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한국산 제품 수출은 현지 판매증가를 보다 훨씬 적은 수준의 증가 전망
- 위성방송수신기 시장은 포화상태인 동시에 저가의 중국산 제품 공세로 인해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낮아진 상황임.
- 한국 업체들은 고화질 위성방송수신기 등 기술집약적 하이엔드 제품 위주로 활로를 찾고 있으나 전체적인 시장상황이 어려운 상태

7) 가전기기 : 현상유지

- 칼라TV 및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백색가전제품은 삼성, LG 등 한국 브랜드 제품이 시장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등 중동아프리카 시장에서 판매가 크게 신장되고 있는 상황이나, 중국과 동남아 현지공장 공급물량 확대에 따라 한국산 제품 수출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TV의 경우 LCD TV 가격이 PDP TV 가격에 근접함에 따라 LCD TV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PDP TV 수요는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이란의 경우 대장금 방영에 따른 한류 열풍에 편승, 한국산 대형냉장고가 혼수품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어 '08년에도 높은 수출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전반적으로 일본산 및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 및 품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8) 자동차부품 : 소폭증가

- 중아지역 내 자동차 수요 증가 및 한국산 자동차 수출증가에 따라 국산 자동차 부품 수요도 동반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산 필수부품을 제외한 일반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고전 중
- 중아지역 내 자동차부품 최대 수출대상국인 이란의 경우 OEM 부품의 이란산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금융제재의 영향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
- 최근 중국산 A/S용 자동차 부품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면서 경쟁 격화

9) 컴퓨터 : 소폭감소

- 정부, 공공기관의 업무전산화 지속, 인터넷인구의 증가, 인텔, MS사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컴퓨터 교체 수요 발생 등 컴퓨터 수요는 당분간 증가세 지속 전망되나, 중국, 대만산 저가 위주의 공급물량 증가로 한국산 컴퓨터의 수출물량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움.
- LG전자 등 아국업체는 대부분 노트북 PC 위주로 수출하고 있으나, 저가 보급형 제품은 중국공장에서, 프리미엄급은 한국에서 공급함에 따라 한국산 노트북 PC의 수출증가는 다소 둔화될 전망

10) 석유제품 : 소폭감소

- 윤활유의 경우 꾸준한 수요가 있으나 경유제품은 남아공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수요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

11) 선박류 : 현상유지

- 선박류 수출은 중동지역은 쿠웨이트, 아프리카는 라이베리아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며, 라이베리아 편의국적선 수출은 우리나라 선박 수주 호조에 따라 지속 증가 전망
- 쿠웨이트의 경우 '04년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유조선 7척을 수주, '06년초부터 선주사에 인도하고 있으며, '07년초 2척 인도 완료
- '08년에는 1척의 인도가 예정되어 있어 '07년 대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4. 2008년 수출유망품목

1) 화학기계 (MTI 7216)

- 사우디 등 GCC국을 중심으로 담수공장건설 프로젝트가 완료 또는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한 증발기 및 가열기 등의 산업기계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한국산 화학기계 수출이 크게 증가

2) 공기조절기 (MTI 7131)

- 사우디 등 GCC국을 중심으로 오일가스, 석유화학, 수전력 및 발전설비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열교환기 등 공기조절기 수요가 크게 확대
- 한국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증가에 따른 펌프, 열교환기 등 기초산업기계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3) 철강 및 비합금강형강 (MTI 6111)

- 빌딩 및 SOC 건설, 창고건설, 오일가스, 석유화학, 발전 및 담수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확대되면서 H-Beam, Angle 등 형강류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
- 한국산 철강 및 비합금강형강의 경쟁력 강화로 지속적 수출확대전망

4) 철강재 용기 (MTI 6161)

- 오일가스, 석유화학, 발전 및 담수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확대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를 중심으로 철강재 용기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07년 한국기업의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중동지역 약 130억불 초과 전망)에 따른 후속 기자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산 철강재 용기의 수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

5) 전선 (MTI 8500)

- 대규모 발전, 변전소 건설, 송전탑 건설 등의 발전 및 송전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면서 전선 수요가 급증
- 중동지역의 경우 '07년 200%의 수출증가율이 예상되며, '08년에도 아국산 전선 수요 지속 전망

6) 변압기 (MTI 8421)

- 각종 SOC 프로젝트 및 신도시 건설, 대규모 플랜트 건설, 인구유입 증가 등으로 전력수요 급증 및 전력산업 프로젝트가 크게 증가하여 변압기 수요확대 추세
- 한국기업의 변전소 건설프로젝트 수주 및 송전선 매설공사 확대 등으로 한국산 변압기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2007년 들어 수출이 급격히 확대 중이며, 2008년에도 지속 전망

7) 밸브 (MTI 7512)

- 중동지역 산유국을 중심으로 오일가스, 석유화학, 전력 플랜트 확대추세에 따른 밸브 수요 급증세
- 한국기업의 오일가스, 석유화학, 담수, 발전 프로젝트 수주 확대에 따라 관련 기자재인 밸브의 수출도 크게 증가할 전망
- 한국산 밸브는 품질이 우수하여 현지의 호응도가 높아 수출이 지속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8) 건설중장비 (MTI 7512)

- SOC 및 신도시 건설프로젝트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건설 중장비 수요 폭발적 증가
- 알제리의 경우 2008년 중 국내 건설업체 컨소시엄의 알제리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수주가 예상됨에 따라 건설 중장비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
- 현지 건설업체의 특징상 중고 건설장비를 선호함에 따라 수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

9) 철구조물 (MTI 6152)

-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오일·가스, 석유화학, 발전·담수 프로젝트 발주 증가 및 아국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증가에 따라 철구조물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

중남미지역

1. 2008년 중남미지역 경제 및 시장여건

가. 낙관적 요인

☐ 중남미 경제, 5년 연속 5%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세 기록 예상

- CEPAL(UN 산하 중남미 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중남미는 2008년 약 4.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2006년에는 5.6%, 2007년에는 5% 성장 예상
- 중남미지역에서 이러한 성장세는 198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됨
- 중남미경제의 안정적 성장세는 국제자원가격 상승, 물가안정, 외채 감소 및 외환보유고 증가, 실업률감소 및 근로자 임금 인상 등의 요인에서 기인

〈중남미 지역별 경제성장률 추세〉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예상)	2008(예상)
중남미	4.7	5.6	5.0	4.6
멕시코	2.8	4.8	3.6	3.8
브라질	2.9	3.7	4.3	4.5
칠레	5.7	4.0	5.5	5.5
아르헨티나	9.2	8.5	7.5	6.0
콜롬비아	4.7	6.8	5.8	5.5

자료원 : CEPAL

☐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

- 2003년 이후 5년 연속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2008년에도 흑자 달성 예상

〈중남미 지역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단위 : %)

1991~2000	2003	2004	2005	*2006(예상)	*2007(예상)	*2008(예상)
-2.8	0.5	1.0	1.6	1.9	1.4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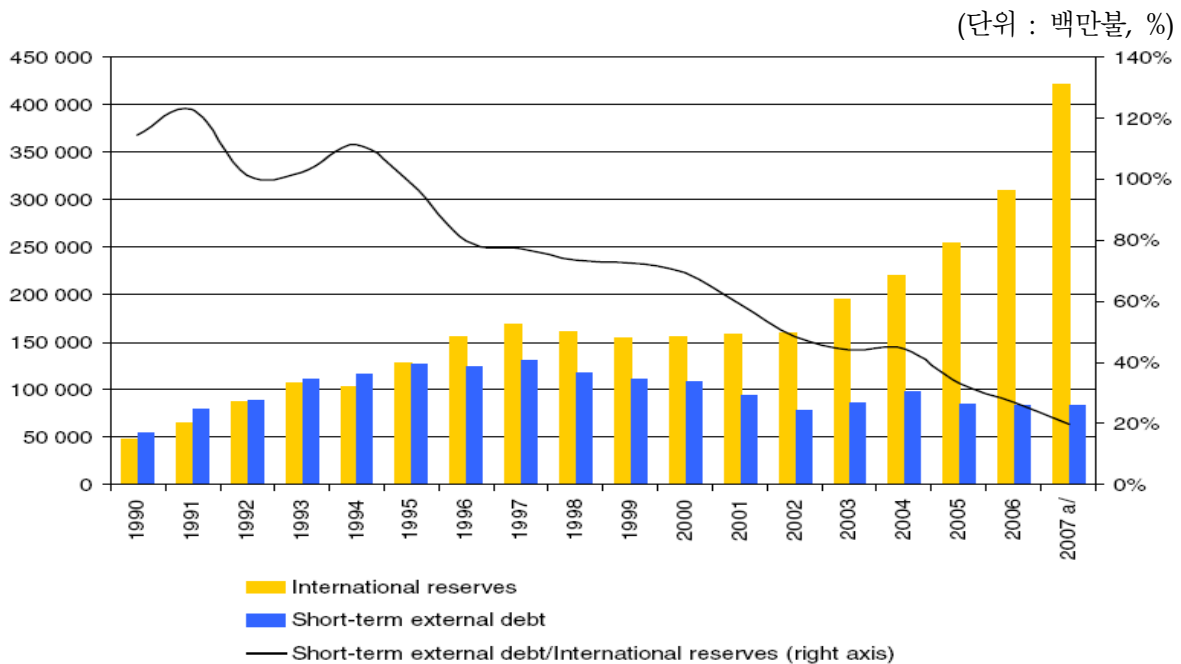
자료원 : World Bank

-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 기조로 인해 중남미 각 국에는 외화유입이 늘어났으며 이는 수입 여건 개선으로 이어짐.

□ 거시경제지표의 취약성 개선

- 외채감소, 외환보유고 증가
 - 1990년대까지 중남미 경제 취약성의 대표적 원인이었던 과도한 외채와 부족한 외환보유고 문제는 2000년 이후로 크게 개선
 - 2007년에는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25%까지 하락할 전망
- 이러한 외환사정 개선에 따라 S&P사는 2006년과 2007년 초, 중남미 각 국의 외환위기 등급을 상향조정한 바 있음
 - 아르헨티나(2006, B+), 브라질(2007, BB+), 칠레(2006, A), 콜롬비아(2007, BB+), 페루(2006, BB+), 과테말라(2006, BB)

〈중남미 지역 단기외채 및 외환보유고 추이〉



자료원 : CEPAL

□ 중미지역 DR-CAFTA 효과 가시화

- 미국과 중미 국가간 FTA 협정인 DR-CAFTA가 2008년 중 본격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외국인 투자 확대 및 대미 수출확대 예상
- 시장개방을 앞두고 국영기업의 투자도 활발해질 전망

나. 비관적 요인

□ 중남미시장 내 한중일 경쟁 격화

- 중남미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강세가 매년 두드러지고 있는데 가격을 중요시하는 중남미 시장의 특성상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
- 중국산 제품은 섬유, IT전자, 생활소비재 등 거의 전분야에 걸쳐 범람하고 있는 상황
- 브라질에서는 중국이 아르헨티나를 제치고 수입대상국 2위를 차지하였으며 2009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누르고 브라질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옴
- 일본산의 경우도 중국산 제품의 약진에 눌려 각 국에서 점유율이 하락 중이기는 하나 한국산보다는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간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와 독자적인 기술력 덕분에 고가시장에서는 계속하여 선전할 것으로 전망

〈중남미 주요국 한중일 시장점유율 최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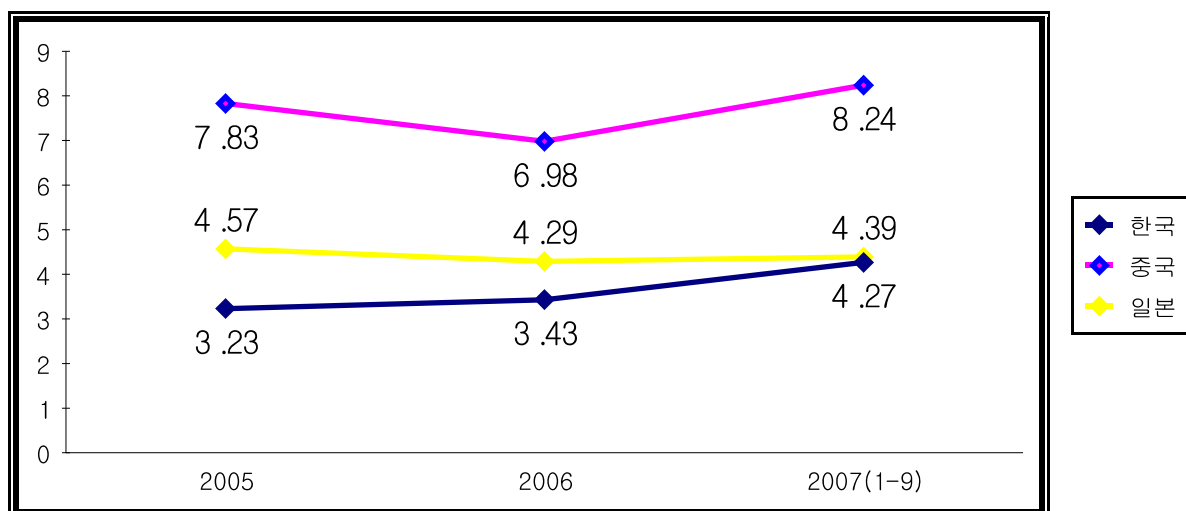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대한 수입			대중 수입			대일 수입		
	'05	'06	'07(1~9월)	'05	'06	'07(1~9월)	'05	'06	'07(1~9월)
멕시코	2.9	2.5	2.6	8.0	3.5	4.2	6.0	4.7	4.8
브라질	2.9	3.4	2.9	6.0	8.7	10.2	3.9	4.2	3.9
칠레	3.9	4.4	7.4	9.5	8.7	10.3	3.8	3.9	4.5

자료원 : 무역협회, 브라질 관세청, 멕시코 통계청

〈멕시코, 브라질, 칠레 시장 한중일 평균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자료원 : 무역협회, 브라질 관세청, 멕시코 통계청

□ 인플레이션 문제 발생 가능

- 중남미 지역의 물가상승률은 2003년 이후 5.5% 내외의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며 2007년에는 5.1% 기록 예상
- 그러나 최근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 물가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등은 2007년 연말 기준 두 자리수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2008년에는 에너지, 자원 가격과 식량 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남미지역도 이에 따른 물가상승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

□ 미국경기 하강에 따른 중남미 경제 동반 하락 가능성

- 미국경제에 강하게 연동되어 있는 중남미 경제의 특성상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미국 경기 하강은 중남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중남미 총 수출액 중 약 절반가량이 대미국 수출액임을 고려할 때, 미국경기 하강은 먼저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또한 미국에 체류 중인 히스패닉 인구의 본국 송금액이 줄어들것으로 전망
- 2006년 기준, 해외 히스패닉 인구가 본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600억불에 달함

2. 2008년 對중남미지역 우리나라 수출전망

가. 총괄표

구 분	단 위	2007년	2008년
금 액	백만불	25,121	29,391
증감률	%	22.0	17.0

나. 전망근거

1) 밝은 면

□ 중남미 각 국 통화강세에 따른 구매력 향상

- 베네수엘라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중남미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국 화폐가 평가절상 되었는데 특히 브라질에서는 2003년 이래 무려 97.2%나 평가절상 되었음.

- 이러한 자국화폐 강세 추세는 약달러 기조와 맞물려 수입 증가 및 구매력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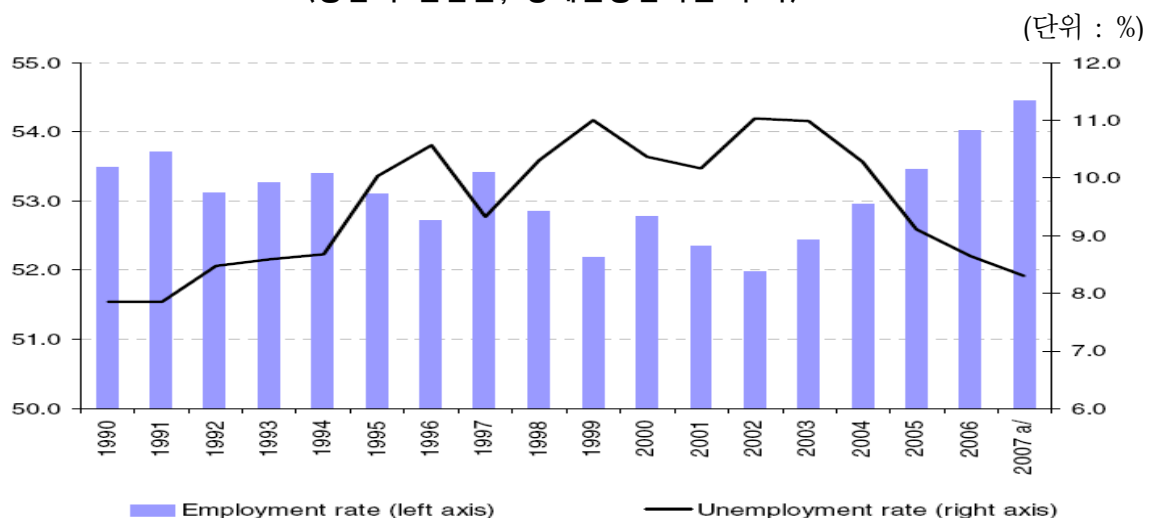
□ 국가주도 SOC 투자 확대

- 중남미 주요국에서 정부주도 인프라 프로젝트 본격 시행 예정
 - 브라질 룰라 2기 정권은 인프라 확충에 2,800억불 이상 투입 예정
 - 멕시코 세제 개혁법안 통과를 계기로 프로젝트 실행단계 진입 기대
- 아르헨티나,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등에서도 전력, 통신, 에너지 등 각종 분야에 걸쳐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될 예정이며 특히 파나마에서는 운하확정, 파나마시티-콜론 자유무역지대간 고속도로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 예정
- 한국은 2005년 IDB(미주개발은행)가입, 2007년 IIC(미주투자공사)와 MOU체결 등을 통해 중남미 프로젝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

□ 소비층 확대 및 소비자 구매력 증가

- 실업률 감소,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으로 소비계층 확대
 - 2005년 이후 중남미 지역 실업률 한 자리 수 유지
 - 2001, 2002년 1%내외의 증가에 그쳤던 임금노동자수는 2004년 이후 매년 4% 가량 증가하고 있음.
- 중남미 각 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1인당 소득수준이 증가하였으며, 물가상승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전품목에 걸쳐 수요 증가 예상

〈중남미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원 : CEPAL

2) 어두운 면

☐ 경쟁국 대비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 약화

- 한국산 제품은 중국산에는 가격경쟁력에서 열세이며 일본, 미국, 구주 등 선진국 제품에 비해서는 품질 및 브랜드 인지도가 열세를 보이고 있어 소위 “포지셔닝 트랩”에 빠진 것으로 분석됨.
- 즉 한국산 제품은 가격, 품질, 브랜드 등의 분야에서 모두 어중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바이어에게 특별히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없는 상황
- 중남미는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해 한국산의 공략이 가능한 중산층이 취약한 구조
- 최근 중국산 제품의 품질향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산의 중국산에 대한 품질우위도 점차 희박해질 것으로 보임.

☐ 역내 지역주의 심화 및 경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효과 가시화

- Mercosur(남미공동시장),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 기존 역내 공동시장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DR-CAFTA(미-중미 자유무역협정) 효과 본격화
- 일본-멕시코(2005년 발효), 중국-칠레(2006년 발효), 일본-칠레(2007년 발효), 미국-페루(2008년 발효 예상), 대만-과테말라(2007년 발효) FTA 등 중남미 주요국과 경쟁국과의 활발한 FTA 체결로 인해 중남미 시장 내 경쟁 격화 예상

다. 종합의견

- ☐ 중남미경제의 중장기적인 활황세와 실업률 감소로 인한 소비자들의 구매력 상승, 자국화 강세로 인한 수입여건 개선 등으로 인해 중남 미지역의 수입은 지속 증가할 전망
- ☐ 한편 원화강세에 따른 가격상승은 가격에 민감한 중남미 시장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국제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생산단가 상승, 유가상승으로 인한 운송료 증가 등도 한국산의 수출에 불리한 여건이 될 것으로 보임.
- ☐ 이러한 불리여건에도 불구하고 2008년 중남미시장에서는 한국의 주력상품인 가전, 자동차, 휴대전화, 기계,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에 걸쳐 고르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단, 한국의 주력상품은 일본, 중국 등 경쟁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며 일본, 중국과 중남미 주요국간의 FTA체결로 인한 중남미 진출 확대가 예상되어 한국의 수출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3. 품목별 수출전망

가. 주요 품목 수출전망

품목명 (MTI코드)	'08 연간전망 ('07년 대비)	전망근거 요약
일반기계 (71,72,73,79)	소폭증가	- 경기활성화로 기계설비 수요 증가 - 한국산 기계 인지도 확산
자동차 (741)	소폭증가	- 구매력 향상에 따른 차량 수요 증가 - 한국산 경제성, 연비 등 인정
철강제품 (61)	소폭증가	- 건설경기 활성화로 철강제품 수요 증가 - 브라질에서는 약진, 멕시코에서는 다소 감소 예상
석유화학제품 (21)	소폭감소	- 중국산, 미국산 등의 수입수요 확대
섬유류 (4)	현상유지	- 대체로 중국산 저가제품에 시장을 잠식 - 고급섬유에 대해서는 한국산 수요 소폭 증가세
평판디스플레이 (8361)	소폭증가	- 가격하락으로 인해 성장세 지속 - CRT방식에서 차세대 TV로 이동 중
무선통신기기 (821)	소폭증가	- 최근 몇 년 동안의 폭발적 성장세는 한풀 꺾임 - 한국산 인지도는 높으나 저가제품에 다소 약함
반도체 (831)	소폭증가	- IT산업에서 수요 증가
가전 (82)	현상유지	- 가계소득 증가로 가전제품 수요 지속 증가 - 한중일 경쟁격화가 걸림돌
자동차부품 (742)	소폭증가	- 한국산 자동차 판매 호조로 관련 부품 수요도 증가 - 한국산 자동차의 AS용 부품 수요 증가
컴퓨터 (813)	소폭감소	- 중국산 저가 PC의 공략으로 한국산 고전 예상
석유제품 (133)	현상유지	- 특별한 호재나 악재가 없어 현상유지할 것으로 전망
선박류 (7461)	소폭증가	- 파나마 물류산업 호황으로 수요 증가

자료원 : 바이어(174)개사, 주재상사(36)개사, 조사기관(21)사, 기타(10) 등

나. 주요 품목별 전망근거

1) 일반기계 : 소폭증가

- 경기활성화로 기업들의 기계설비 수요 증가

- 특히 브라질에서는 해알화 강세와 국내 제조업경기 활황에 따라 기계 수입 수요가 대폭 증가 중
- 신규 기계뿐만 아니라 노후기계 교체 수요도 증가세
- 또한 중남미 대부분의 나라에서 건설경기가 활황이기 때문에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
- 중남미 각 국에서는 제조업과 건설기계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한국산의 경우 구미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에서, 중국산에 대해서는 가격에서 열세이므로 내년도 기계류 수출은 소폭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

2) 자동차 : 소폭증가

- 중남미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중고차보다는 신차, 일반 세단보다는 투싼, 산타페 등 SUV 위주로 한국산 판매 호조
- 미국 품질 테스트에서 우수성능 입증 등 한국산 자동차의 우수성에 대한 인지도 크게 제고
- 한국자동차는 특히 브라질, 칠레, 파나마, 코스타리카 등에서 인기
- 브라질의 경우 금년 8월까지 우리 수출금액이 전년도 전체보다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2억4천9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SUV차량을 위주로 한 인기는 내년에도 가속화될 전망
- 칠레에서는 2007년 3분기 기준 한국산의 시장점유율이 28.6%에 달해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으나, 2007년 9월부터 일본-칠레간 FTA가 발효됨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게 되는 일본차의 추격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

3) 철강제품 : 소폭증가

- 중남미 각 국에서의 건설경기 활황에 따라 관련제품인 H빔, 아연도 강판, 비합금 철강 등에 대한 수출이 증가할 전망
- 브라질의 경우 현지 철강업체들의 가격상승 선언 이후 주요 수요자인 자동차, 가전 업체 등이 해외 공급선을 적극 찾고 있으며 이 중 한국산 제품의 경우 품질과 가격이 모두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여 내년 중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멕시코에서는 철강수요가 감소추세이며 약달러 현상으로 미국산 제품의 진출이 활발하여 한국산 제품의 진출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

4) 석유화학 : 소폭감소

-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중이나 인근국 및 경쟁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산 수요 감소 예상
- 브라질의 경우 수요 지속 증가중이나 브라질 내 다국적 기업들이 우세를 보여 한국산 입지 좁음
-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등에서는 콜롬비아, 칠레, 브라질 등 인근국 또는 미국, 중국 등 경쟁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어 한국산의 고전이 예상됨
- 아르헨티나에서는 국내산업 활황에 따라 기초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석유화학원료, 특히 폴리에스터수지, 에폭시수진 등 합성수지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국내산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5) 섬유류 : 현상유지

- 이미 수년전부터 중남미 섬유시장은 중국산이 장악해 왔으며 한국산은 고전을 면치 못하였으나 최근 들어 고급직물류를 위주로 다시 수요가 증가 중
- 대표적으로 멕시코와 브라질에서 고품질 제품 위주로 수요가 증가 중이며 페루에서는 한국산 나일론사의 품질이 호평 받으며 바이어들의 관심을 받음.
-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자유무역지대에 있던 한국과 미국 제조업체들의 잇따른 투자회수와 투자지역이동으로 인해 한국산 직물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
- 한국산 섬유류는 최근 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수출액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6) 무선통신기기 : 소폭증가

- 2000년 이후 중남미에서 휴대전화 가입인구의 성장률은 폭발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휴대전화 수출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최근 들어 가입 증가율이 다소 완만해짐에 따라 2008년에는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이 소폭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임.
- 교체수요를 노린 차별화된 제품에서는 한국산이 선전할 것으로 보이나 저소득층을 타겟으로한 신제품 분야에서는 다소 고전할 것으로 예상
-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장점유율 1,2위 브랜드는 노키아와 모토로라이지만 삼성, LG 제품 등 최근 급상승한 브랜드 이미지로 인해 꾸준히 판매가 늘어나는 추세

- 코스타리카에서는 그간 회선부족으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대기인원이 많아 휴대전화 수요가 크지 않았으나 2008년 3월부터 회선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여 수요 대폭 증가 예상

7) 가전 : 현상유지

- 중남미 가전시장은 경제활황으로 인한 구매력 증가가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이어지는 호재와 중국산 또는 중남미국가 자체 브랜드의 저가제품 공세라는 악재가 혼재되어 있음.
- 브라질에서는 유래 없는 해알화 강세로 인해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구매력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짐. 한국산 브랜드인 LG, 삼성에 대한 인지도 확대로 수출 지속 증가 예상
- 아르헨티나에서도 구매력 증가로 인해 고급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중남미산 제품과 품질에서 차별화되는 한국산 제품의 선전이 기대됨
- 멕시코 가전시장은 이미 성숙하여 교체수요가 대세인데 최근 중국 및 멕시코 국내산 제품이 가격 대비 품질이 향상되어 멕시코 중 하류층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페루에서는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산 제품이 다량 유입되어 경쟁이 치열한 상황

8) 자동차 부품 : 소폭증가

- 멕시코에서는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관련 부품 수요도 낮은 편임
-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등에서는 한국산 자동차의 높은 시장점유율로 인해 교체부품 및 AS부품에 대한 수요가 높음.
- 과테말라, 페루 등에서는 노후된 한국차량이 많아 이들 차량에 대한 교체부품 수요가 늘어날 전망
- 중국산 부품이 경쟁국 생산 차량부품은 물론 한국산 차량에 대한 비순정부품 판매도 늘리고 있어 추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중국산 저가제품의 공략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자동차 수출의 증가와 노화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교체부품 수요 증가로 중남미 지역에 대한 자동차 부품 수출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4. 2008년 수출유망품목

1) 전력기기 (HS 8503)

-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은 전력난을 겪고 있어 관련제품 수요 다대
- 발전기 및 부품, 축전지, 에너지효율관련 제품 등 유망

2) 자동차부품 (HS 8708)

- 칠레, 파나마, 코스타리카, 보고타 등의 국가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판매 호조에 따라 교체부품 수요가 많음.
- 중남미 각 국은 중고차 거래가 활발하여 중고차 수리를 위한 자동차 부품 수요가 큰 편
- 멕시코의 경우에는 NAFTA협정에 의거, 중고차시장이 개방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자동차 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

3) 건설장비 및 전자재(HS 8429)

- 중남미 건설경기 활황으로 인해 건설중장비 및 전자재 수입 대폭 증가 예상

4) 보안기기 (HS 852190)

- 중남미 지역은 고질적으로 치안이 불안한 지역으로 이에 따라 주택 및 사무실, 공장 등에 설치를 위한 DVR, CCTV 수요가 큼.
- 최근에는 사무실을 중심으로 디지털 출입통제 시스템의 보급도 확대되고 있음.
- 브라질 전자보안장비협회에 따르면 보안장비는 최근 수년간 연평균 12%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5) 전자의료기기 (HS 9018)

- 중남미지역 경제활성화와 달러 약세화로 인해 고가품에 속하는 전자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
- 병원용 의료기기 외에도 일반인들의 건강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으로 가정용 의료기기도 수요 증가

2007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7-001	세계 바이오에너지 개발동향	2007.2
07-002	일본 히트 상품 속에 숨은 키워드	2007.2
07-003	2010, 중국 비즈니스 이정표 : 3가지 의문과 제안	2007.2
07-004	2007년 중국의 외자기업 관련 주요 신규법규와 시사점	2007.2
07-005	대미수출 부진원인과 한미FTA 활용 방안	2007.3
07-006	중남미 신정부 출범과 시장 진출 방안	2007.3
07-007	북핵 사태 해결 이후 북-EU 경제 관계의 향방	2007.3
07-008	일본의 지적재산 강화전략 및 시사점	2007.3
07-009	엔화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2007.3
07-010	한미 FTA체결에 따른 대미수출 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2007.4
07-011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시장환경 변화	2007.4
07-012	2007년 美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한미 FTA 협상 평가와 시사점	2007.4
07-113	멕시코 수출. 산업 진흥제도(IMMEX/PROSEC)의 이해	2007.4
07-014	EU 가입 3주년, 신규 회원국들의 경제변화 추이	2007.4
07-015	중국기업의 한중 FTA 인식과 전망	2007.5
07-016	발칸국의 투자진출 여건 분석	2007.5
07-017	러시아 오일머니, 어디로 가고 있나	2007.5
07-018	WTO 가입 후 베트남 섬유산업 환경변화 및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2007.6
07-019	대중수출 품목구조 변화와 주요 요인	2007.6
07-020	해외무역관에서 바라본 2007년 하반기 수출전망	2007.6
07-021	인도 소매유통시장 현황과 전망	2007.6
07-022	북중변경무역현황과 전망	2007.6
07-023	M&A를 통한 중국 진출 전략	2007.6
07-024	미래를 위한 준비, 중동의 탈석유화 정책	2007.6
07-025	중국 증치세 환급률 인하의 영향과 전망	2007.7
07-026	숫자로 보는 미국경제 현주소	2007.7
07-027	아세안을 잡아라1-아세안 주요시장 수출유망 품목	2007.7
07-028	중국투자기업 경영성과 평가와 전망, 그리고 한중 FTA - Grand Survey 2007	2007.7
07-029	사례로 보는 신흥시장선점 효과	2007.7
07-030	일본 통신판매 시장현황 및 한국기업 진출방안	2007.7
07-031	EU 화학물질등록승인제도(REACH)에 대한 현지 대응사례 및 시사점	2007.7
07-032	북미시장 핵심 소비계층,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2007.7
07-033	한중수교 15주년, 중국이 평가한 한국과 한국기업 경쟁력 현황	2007.8
07-034	뉴질랜드를 통해 살펴본, 국가브랜드 전략 성공 키워드	2007.8

07-035	한-EU FTA에 대한 유럽 진출 한국기업의 반응조사	2007.9
07-036	선진국-중국 무역마찰, 그 영향과 대응	2007.9
07-037	아세안 주요국 투자여건 비교	2007.9
07-038	EU-멕시코, EU-칠레 FTA 체결 전후의 양측간 무역, 투자흐름	2007.10
07-039	블루오션전략도 안통하는 중국시장	2007.10
07-040	미지의 아프리카, 기회의 대륙으로 - 중국의 대 아프리카 진출현황과 시사점 -	2007.10
07-041	한국기업들의 해외시장 현지화 전략 사례	2007.10
07-042	개성공단 제품의 해외판로 : 개도국시장의 의의와 진출 방안	2007.11
07-043	중국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 개정의 영향과 전망	2007.11
07-044	중아 주요국의 민영화 추진현황 및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2007.11
07-045	동남아 신흥 중산층,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2007.11
07-046	해외무역관에서 바라본 2008년 수출전망	2007.12

● 무공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7-001	2007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7.1
07-002	2007 미리보기	2007.1
07-003	2006년 중국 지재권 백서	2007.2
07-004	2006 외국인 투자주간 행사 결과보고서	2007.6
07-005	2006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7.6
07-006	유럽 완성차 기업의 미래형 자동차 개발현황 및 Tier1.2 동향 조사	2007.6
07-007	브라질 비즈니스 가이드	2007.6
07-008	중국투자실무가이드/증보판	2007.7
07-009	2007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07.7
07-010	2007 외국인 투자기업 생활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07.7
07-011	일본의 국가브랜드 육성전략	2007.7
07-012	중국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3	대만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4	일본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5	베트남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6	인도네시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7	캄보디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8	인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9	태국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0	필리핀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1	방글라데시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2	말레이시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3	미얀마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4	아랍에미리트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5	이집트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6	나이지리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7	알제리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8	미국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9	캐나다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0	브라질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1	멕시코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2	독일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3	폴란드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4	체코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5	슬로바키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6	헝가리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7	루마니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8	터키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9	러시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40	카자흐스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41	우즈베키스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42	2007 서울국제식품전, 2007 서울국제식품기술전 종합결과보고서	2007.7
07-043	주요국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2007.7
07-044	중국 新노동계약법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2007.7
07-045	한눈에 보는 중국 주요도시 투자환경	2007.8
07-046	중남미 IT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07.8
07-047	설명회 CRM 무작정 따라하기	2007.8
07-048	주요 7개국 FTA 추진전략 비교	2007.9
07-049	유럽 주요국 자동차부품 After-saler Market 진출 가이드	2007.9
07-050	사모펀드 이야기	2007.9
07-051	FTA 원산지규정 활용가이드	2007.9
07-052	2007 세계 주요도시 투자여건	2007.9
07-053	2006년도 Invest KOREA 연차보고서	2007.9
07-054	미주지역 항공산업 진출전략	2007.10
07-055	중동아프리카 플랜트기자재 시장 이렇게 공략하라	2007.10
07-056	인도 투자실무가이드	2007.10
07-057	일본 온라인 게임 시장 동향	2007.10
07-058	중동 유럽 건설 프로젝트 진출 환경	2007.10
07-059	인도네시아 투자실무 가이드	2007.10
07-060	미개척 자원부국 자원현황 및 개발동향	2007.10
07-061	미국투자 실무가이드	2007.11
07-062	한국의 중남미 투자와 진출전략 연구	2007.11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7-001	2007년 세계시장 진출전략설명회	2007.1
07-002	Post-China 투자진출 전략 설명회	2007.3
07-003	한미 FTA를 활용한 미국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7.4
07-004	발칸국 투자유망 프로젝트 설명회	2007.5
07-005	중국 투자환경 이렇게 바뀐다!!!	2007.5
07-006	한미 FTA 활용, 산업별 대미진출전략 설명회	2007.6
07-007	이란 투자환경 세미나 참고자료	2007.8
07-008	UAE 투자환경 세미나 참고자료	2007.9
07-009	New China New Business 설명회	2007.9
07-010	벨라루스 투자환경설명회	2007.10
07-011	아프리카 진출전략 및 주요국 투자환경 세미나	2007.10
07-012	2008 중국 경제정책 대응전략 설명회	2007.10
07-013	인도 투자진출전략 설명회	2007.11
07-014	2007 일본 온라인 게임 시장 진출전략	2007.11
07-015	2007 국제자원협력 심포지엄	2007.11
07-016	미국시장 현지화 이렇게 한다 설명회	2007.11
07-017	2007년 해외에서의 지재권 보호 세미나	2007.11
07-018	글로벌M&A진출전략 설명회	2007.11

● 산업연구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7-001	러시아의 주요 산업	2007.11
07-002	멕시코의 주요 산업	2007.11
07-003	베트남의 주요 산업	2007.11
07-004	브라질의 주요 산업	2007.11
07-005	알제리의 주요 산업	2007.11
07-006	이집트의 주요 산업	2007.11
07-007	인도의 주요 산업	2007.11

작성자

- ◆ 통상전략팀 양은영 과장
- ◆ 북미지역본부 및 무역관
- ◆ 구주지역본부 및 무역관
- ◆ 아시아대양주지역본부 및 무역관
- ◆ 일본지역본부 및 무역관
- ◆ 중국지역본부 및 무역관
- ◆ 중남미지역본부 및 무역관
- ◆ CIS지역본부 및 무역관
- ◆ 중동아프리카지역본부 및 무역관

Global Business Report 07-046

해외무역관에서 바라본 2008년 수출전망

발행인 | 홍기화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07년 1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7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